



CARITAS WONJU

2011년 봄·여름 <제22호>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NONPROFIT
US POSTAGE
PAID
MERRIFIELD, VA
PERMIT 489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성심학교 야구부 ▶14~15

6 라인댄스 유튜브에 올랐어요



7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체를 찾아서



17 따뜻한 겨울 나게 해 주셔서 ...



18 산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 길원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 571-432-9868 / 703-968-3010

이메일 : caritasva@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caritaswonjuva.com>

글 쓰는 순서

	글 쓰는 순서	
2	고국에서 온 편지 - 진실한 사랑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심한구 신부
	카리타스란	
3	이사장 글 - 꿈과 희망	곽호인 신부
4	후원회장 글 - 우리들의 히어로	유홍열 회장
5	편집인 데스크 - 일상에서 '정의'를 고민하라	정영희
6	신나는 라인댄스 유튜브에 올렸어요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 정기 이사회	
7	사랑의 모금통 업소를 찾아서 - 웨어레익스 카페	신선애
8·9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민 멜라니아
10	진정한 자선	이영목
	장애인들에 대한 소고	박평일
11	인생여정	오영환
12	여름 휴가비용과 세금공제	노상문
13	광고 - 하상문화방송	
14·15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성심학교 야구부	황윤재
16	충주 성심 야구부 후원 1004모집	
17	루치아 심터 10주년 기념일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19	산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시설소개 - 샬레시오의 집	
22·23	원주후원회 소식	
24	길원이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황윤재
25	고국아동후원	
26·27	후원회비	
28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후원금 내역 (2010년 11월 - 2011년 5월)	
29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30	광고	
31	광고	
32	광고 - 연극 '바보 추기경'	

고국에서 온 편지

진실한 사랑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심한구 베드로 신부 <원주교구 교정병원 경찰사목>

하느님은 인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가슴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피를 나누어준 아기를 세상에 내 놓고, 맨 먼저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 때, 하느님은 아기를 안은 어머니에게 행복을 선물하지요. 어머니는 그 순간 본성적으로 아기에게 “너를 살릴 가슴이 여기 있다. 내 사랑을 전해줄 가슴이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아기는 엄마 품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며 사랑을 배웁니다.

한 어머니가 어버이 날 특집 스타킹에 나와 온 국민을 울렸습니다. 전신 근무력증에 시달리는 엄마가, 80세의 폐능력과 천식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는 그 엄마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엄마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왔더군요. 엄마이기에 낼 수 있는 그 용기에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엄마다” 그녀가 숨 가쁘게 끝까지 부른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노래 속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희생하고 있다는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 그녀를 다시 살게 만든 것은 “엄마만 있으면 한 칸이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라는 작은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사랑을 주었던 엄마가 사랑을 받은 아들로부터 들은 그 한 마디의 말이 하느님께서 자신의 생을 거두어 갈 때까지 가족과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들의 한 마디 말에 엄마는 아빠에게 자신으로 인해 많은 것이 희생되는 것을 알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을 고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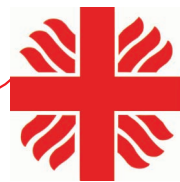
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정말 사랑해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실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짹!’ 해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무룩 흘러내렸거든요. 그랬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의 사랑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열 달 동안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아기에게 자신의 살인 젖을 나누어 주는 존재입니다. “나는 엄마다!” 이 고백은 “나는 너에게 나의 피를 나누어 주고 나의 살을 나누어 주는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 것 없이 느껴져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있어 주는 것’,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나는 엄마다”라고 고백한 한 어머니는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후원회 가족 여러분,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살어나게 하고, 그분들이 그 속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분명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그 가난한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선물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카리타스(Caritas)란?

라틴어로 ‘카리타스(Caritas)’라고 쓰며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카리타스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하기도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와 전세계 198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4개 카리타스는 상호협력함으로써, 특히 제 3세계 국가의 구호 및 복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글

꿈과 희망

곽호인 베드로 신부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 이사장, 성 정바오로성당 주임신부>

불별 더위를 잊게 하는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임은 물론 경기관련 시설, 도로 건설등을 위해 2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조 5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고향인 저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가장 낙후된 강원도 지역의 발전과 함께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이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때 평창이 제시한 프레젠테이션의 메시지는 ‘꿈과 희망’ 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올림픽 정신을 세계와 나누고자 하는 꿈”이 실현되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지난 동계올림픽의 금 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 위원회가 자신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주었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며 “성공과 성취의 가능성은 세계 젊은이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뉴스를 읽고 문득 한비야가 쓴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은 젊은이들에게 자신만의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이 아니라 엄마의 꿈, 아빠의 꿈, 선생님의 꿈, 사회적으로 성공한 다른 사람의 꿈을 꾸면서 자신의 꿈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즉 생각만 해도 가슴 뛰게 하는 것,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꿈은 조금 허황된 것일 수도 있고, 어른들의 꿈은 지극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노인들의 꿈은 그저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3일만 앓고 죽는”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평창이 세 번 도전하고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듯이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

아가야 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하느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고 절차라고 생각하고 꺾듯이 이겨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오면 하느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단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영 자신 없는 새로운 일들이 닥쳐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고,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뛰어들어 봅시다.

어떻든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살고, 어떤 이는 출세를 위해서 살고, 어떤 이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거울을 보고 여러 표정을 짓고 울고 웃고 하는가 하면, 출세를 위해서는 밤 새워 공부하고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가가 되고자 한다면 훌륭한 선생님께 찾아가서 배우고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꿈과 희망’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 즉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만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동을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처럼 국내는 물론 남북과 세계가 화합하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지구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회원 기도문

모든 이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봉헌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 대한 굳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사랑 닮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기도로
주님 모상이 우리와 이웃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 손 모아 간절히 청하오니
교회로 하여금 세상 안에
주님 뜻을 식별하여
죄와 온갖 고통 속에
간혀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랑의
성사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모든 이를 돌보는
성직자, 수도자와 봉사하는
모든 이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당신 모습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원주 카리타스에 함께 하시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랑의 작은 불꽃 모임이 되어
주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도구되게 도와주소서.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하나되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후원회장 글

우리들의 히어로 (HERO)

반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회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릴 때가 되면 어떻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도 모두 읽어 보셨거나 영화로 한번은 보셨을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책으로 출간된 지 올해로 75년이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작가 마가렛 미첼이 조그만 골방에 앉아 중고 타이프라이터로 원고를 써 내려갔다는 것과 함께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마지막 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글 쓰기라도 소설을 쓰는 것이 다르고 인사말을 쓰는 것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결론을 먼저 염두에 두고 쓰기 시작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언제나 단 한가지,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지나간 반 년간 카리타스 후원회가 하는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몇 년 전 맨 처음 인사말을 쓰면서 솔직하는 몇 번 쓰면 다음 차례에게 넘겨주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몇 번만 고생을 하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가 거듭 지나도 아직은 그렇게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도 매년 같은 감사의 말씀이라도 다르게 하려니 제 짧은 글 재주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봄이면 치루던 지구촌 아동돕기 모금 골프대회도 올해는 후원이

없이 거르게 되어 별 다른 행사가 없던 중 지난 4월에 충주 성심학교 야구팀의 위싱턴 방문을 돕게 되었습니다.

처음 최기식 신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교장 수녀님의 부탁을 들었을 때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아 과연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확신도 없고 솔직히는 걱정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전 회장인 김 데레사 자매님의 연락망을 이용한 전화통화와 광 베드로 신부님의 강론 한번으로 야구팀의 일주일 일정의 대부분(시내 관광부터 점심, 저녁식사와 간식, 경기 후의 유니폼 세탁까지)을 모두 후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일에는 언제나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서 도와주시는 후원자님들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기회였습니다.

오늘도 또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스탠포드 대학의 젊은 심리학 교수이었던 필립 짐바도 교수가 했던 가상 교도소 실험과 은퇴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4명의 남자 학생을 죄수와 간수로 나누어 대학 지하실을 감옥으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던 이 실험은 시작 몇새만에 간수역의 학생들은 폭력성향을 보이고 죄수역을 맡은 학생들은 정신분열의 증세를 보여 중단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짐바도 교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나치 친위대의 잔학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쓰이는 등 짐바도 교수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으로 보여준 'Evil scientist'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주 일찍부터 사람들은 인간이 본래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 논쟁해 왔고 이 실험 하나로 이 오랜 논쟁에 끝이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보다 현재 은퇴한 짐바도 교수가 하고 있는 일이 더 흥미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전의 실험 결과와는 반대로 세상의 선함을 믿으며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그의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Hero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하는 보통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들으며 짐바도 교수가 하고 있는 일과 경우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 원주 카리타스의 후원자님들이 생각났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조그마한 후원으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조그마한 후원을 보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Hero 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Hero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홍열 <원주 카리타스 후원회장>

편집인 데스크

일상에서 ‘정의’를 고민하라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의식·봉사·희생에서 가능

이기심 버리기, ‘넌비 현상’ 자성해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말 중에 ‘넌비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의 넌비 현상(NIMBY)은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에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뜻한다.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화장터, 교도소, 공동묘지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이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

넌비 현상이 집단 이기주의라면 아래 사례들은 개인적인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신문사를 비롯 많은 한인업소들이 워싱턴 한인타운으로 불리우는 애난데일에 밀집해 있다. 가끔 신문사나 인근 식당 또는 업소 주차장에서 차 2대 주차 공간에 한 대를 세워놓거나 주차선 한 쪽 줄에 닿을 정도로 삐딱하게 주차된 차를 보고 씩씩해질 때가 있다. 값비싼 차 이거나 새로 뽑은 차가 대부분이다. 아마도 굽힐 것 염려해 그런 것 같은데 남을 위한 배려와 기본적인 공동도덕 개념은 제로(zero)로 보인다.

주로 교육과 문화 기사를 많이 쓰고 교육 섹션을 담당하다 보니 가끔씩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를 종종 받는다. 어떤 학생이 음악대회나 미술대회 또는 공부를 아주 잘해 큰 상을 받거나 명문 대학에 합격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한다. 이때 많은 학부모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있다. 한인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안면이 있는 한인 학부모들끼리도 ‘고급 정보’는 서로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가령 자신의 아이가 약기 랫슨을 받고 상을 타게 됐을 경우, 약기 지도 교사 정보를 알려주길 꺼려한다는 것. 랫슨 받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자신의 아이에게 선생이 더 신경을 못 써 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편협한 우려 때문이다.

10여년 전, 90년대 중반쯤의 일이다. 위의 사례와는 다른 필자의 체험이 있다. 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일주에 한 번씩 학교 도서관에 가서 자원봉사한 적이 있었다. 영어도 서툴고 미국 학교 시스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싶어 시작한 활동이었다. 그 때 ‘내 아이만이 아닌 학교 전체 아이들, 커뮤

니티가 잘 되는 일’에 포커스를 두고 자원봉사가 진행되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한국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아이의 답입교사에게 눈도장을 찍고, 내 아이만 생각하는 좁은 자원봉사였을텐데 성숙한 시민의식 아래 지역사회 공동체가 잘 되길 바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학부모들의 태도는 신선했다.

좋은 삶은 타인 배려 등 공동선에서 출발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마이클 샌델 교수(하버드대)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가 지난 봄 한국에서 100만부 판매를 돌파했다. 가히 신드롬(syndrome)이다. 기자 역시 지난해 9월 늦여름 휴가지인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주에 위치한 카보 산 루카스(Cabo San Lucas)에서 그 책을 통독했다.

샌델 교수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선택의 자유,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共同善)을 고민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것을 정의라고 결론 맺었다. 공동선은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며 그것은 시민의식, 희생, 봉사 위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좋은 삶을 다 같이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빈부 격차의 심화는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 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분배 정의와 공동선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고 결론 지었다.

평소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디폴트(default), 북한 핵개발이나 이라크 전쟁, 북 아프리카의 재스민 혁명, 아마존 환경 파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온난화 현상 등 거대 담론에만 주목한다.

정의라는 말과 공동선이라는 단어가 아주 거창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극히 사소한 일상의 연속이며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타인에 대한 작은 배려 하나, 나눔 하나가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오며 이 사회를 밝게 한다. 건전하고 정직한 시민의식, 신앙을 갖고 도덕을 배운다는 것, 사회 규범을 익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주변이 밝아지게 하는

공동선의 시작이다. 그것은 곧 정의의 실천이기도 하다.

서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미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 사회에 꽃송이처럼 피어날 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정의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면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삶, 정의로운 삶을 고민하고 싶다.

정영희 기자

〈워싱턴 한국일보 편집국 부장, 원주 카리타스 편집인〉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주최한 라인댄스 강습의 수강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솜씨를 유튜브(<http://www.youtube.com/Line-DanceCaritas>)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홍 세실리아 강사의 지도 아래 수 개월에 걸친 연습의 결실로 올린 댄스는 Eee Zee Boogie, Shuffle Boogie Soul, Volare, Broken Stones, Topsy Turvy, Good Time, Space Cowboy, Mama Don't Dance, Linda Eh, Action 등 모두 13가지

이다. 특히 '새처럼 날아서' '서울의 아가씨'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 등 흥겨운 우리 가요도 댄스 음악으로 선보인다.

복지재단은 집에서 혼자 라인댄스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현재 올린 동영상에 홍 강

사의 라인댄스 스텝 설명을 추가한 DVD를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올 후반기에 출간될 이 DVD는 복지재단이 제작하는 3번째 라인댄스 DVD인 셈이다. 유튜브에 라인댄스 강습이 올라 있기는 하지만

신나는 라인댄스 유튜브에 올렸어요

DVD 제작도 계획

거의가 영어로 되어있다. 홍 강사는 “우리말로 제작될 이 DVD가 우리 동포사회에 유익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DVD 판매로 많은 어려운 이웃도 돕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라인댄스 수강료 외에 DVD 제작에 필요한 성금도 선뜻 내어 주었다. 수강료 전액과 DVD판매 수익금 전액은 한국의 독거노인 난방비, 필리핀 뼈아파스 어린이 집 후원금 등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된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

정기이사회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지난 1월26일 버지니아의 성 정바로 성당 회의실에서 제8차 법인이사회를 열어 2010년도 재무보고와 2011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지난해에 모금된 후원금은 총 21만9,089달러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액수이지만 3년째 불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특히 아동결연 및 시설후원금은 총 7만7,145달러가 모금돼 전년도보다 1만여 달러 많았다. 모금된 전액은 고국의 50여개 시설과



필리핀, 페루, 네팔, 파푸아 뉴기니 등 해외 복지시설에 전달되었다.

2011년 사업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미용 이벤트, 산타 행사, 후원회지 발간, 라인댄스 강습 및 새 DVD제작, 녹음도서 보급, 사

랑의 모금통 확산 등이 제시되었다.

복지재단의 이사장인 곽호인 신부(성 정 바오로 성당 주임)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을 통해 여러분이 남을 돕는 일에 꾸준한 것을 보니 기쁘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봉사자 수가 적어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어 감사하다”며 카리타스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웨어릭스 카페

신선에 비비안나

그동안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의 일이라면 크든 작든 항상 발 벗고 나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늘 앞장서 왔던 김 데레사 전 홍보이사도 Fair Lakes에 새로이 오픈한 ‘Café at Fair Lakes’를 오픈해 ‘사랑의 모금통’을 설치하고 홍보에 열심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장을 방문했다.

매장으로 들어서니 싱글벙글 환한 미소로 맞아 주는 김 사장은 “숍을 오픈한지 4개월이 조금 지나 아직 모든 것이 서먹서먹했는데, 사랑의 모금통을 설치한 이후 무엇이나고 묻는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느라 한번 더 얘기를 하게 되고, 얘기 속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눈을 맞추게 되어 자연스럽게 고객과 친해질 수 있어 좋다”며 주머니를 탈탈 털어 먼지까지도 사랑의 모금통에 담아 주는 고객분도 있어 가슴이 뭉클한 적도 많았다고 한다.

요즘들어 김사장은 ‘사랑의 모금통’ 덕분에 입가에 미소가 떠날 날이 없다.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식자재 납품을 위해 매장을 방문한 홀세일러 분이,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사랑의 모금통’ 앞에 서서 망설임 없이 주머니를 뒤흔치고, 거스름돈을 모금통 안에 넣을 때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커다란 사랑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솔솔하다며 “인종을 떠나서,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이 사랑이란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고 덧붙인다.

또한 김 사장은 사랑의 모금통 설치한 날의 일을 설명하며 연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의 모금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주카



1 고객 Luis Hernandez 씨와 홀 세일러 김선관 씨가 나란히 모금통에 헌금하셨다. 모금통 첫번째 이용자인 케쉬어 장수정 씨가 뒤로 보인다. 2 김 사장의 봉사 공간. 하상문화방송 편집 등을 한다.

리타스 복지재단이 어떤 봉사단체인지, 직원들에게 특별한 설명이 없었는데도 이미 직원들이 이 모금통에 대해 알고서 사랑의 모금통을 큰 박수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었다. 그런 모습을

The purpose of my visit to Mrs. Theresa Kim, the ex-president of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and the current producer of Hasang Munwha Broadcasting, was to find out how she is on the front line of encouraging donation spirit for the ‘Donation Box of Love’ Program. She owns a deli called ‘Café at Fair Lakes’ located in Fairfax (address given below). Throughout years in the past, Mrs. Kim has led the role of performing the gamut of duties for charitable mission to reach the goal of **‘Making Our World Beautiful’** - the slogan for the nonprofit charitable organization,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At present, she continues to juggle many roles working almost 24/7 as an entrepreneur running ‘Café at Fair Lakes’ and also as the producer for Hasang Munwha Broadcasting, a nonprofit TV program associated with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in serving the spiritual and cultural needs of Korean immigrant communities, that is

being broadcasted through WBS Washington TV.

Today, she welcomes my visit with the heartiest smile showing off her donation box placed next to the cashier. Into four months of café business, she is extremely happy that the donation box opens up a communication channel with customers whose curiosities of the box strike up conversation. In the midst of explaining about our charitable mission, she finds herself becoming one with those who share the interest of giving and sharing. Whenever she catches anyone including delivery personnel and her employees dropping their donations to the ‘Donation Box of Love’, she gets thrilled knowing that their little efforts can give so much empowerment and encouragement to those in need.

As Mrs. Kim enthusiastically explained how the ‘Donation Box of Love’ was created for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as being the innovator, she mentioned

보면서 그동안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좋은 열매로 맺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해 직원들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벅찬 기분이었다”고 김 사장은 설명한다.

Fair Lakes에 새로이 오픈한 ‘Café at Fair Lakes’ 텔리숍은 주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샌드위치, 샐러드바, 커피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테이크 인과 아웃이 모두 가능한 텔리숍이다. 특히 새로 오픈한 매장의 특성을 살려 깔끔하고 고급스런 매장 분위기는 물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며, 고객의 needs를 읽고 찾아 내서 제품에 반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김 사장은 말한다.

이처럼 김 사장은 고객들의 needs를 읽어내기에 바쁘고,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과 사랑의 모금통에 대해 설명하느라 바빠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 봉사가 생활에 배어 있어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부속 비영리기관인 하상문화방송의 실무담당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 사장은 끝 인사말에서도 역시나 하상문화방송에 대한 홍보를 놓치지 않았다. “하상문화방송은 이민생활을 하면서 늘 쫓기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위해, 나만을 위해 좋은 양식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라며 방송은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Cox와 Verizon 채널 30이라고 설명한 후 “꼭, 꼭 보세요”라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Café at Fair Lakes’ 텔리숍은 한번 고객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고객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컨비니언스 개념을 도입한 텔리, 커피 등 One-Stop 쇼핑이 가능한 신개념의 텔리숍을 추구하고 있다. ‘Café at Fair Lakes’매장 오픈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30분이다. ▶주소: 12601 Fair Lakes Circle, Fairfax, VA, 22033 ▶전화: (703) 272 8520

how delighted she was to find her employees’ previous knowledge of the history of the donation box and their eagerness in participation. She complimented the efforts and services of many past and present volunteers for making this possible and for leaving a good impression of the charitable organization.

At her Café, she has two goals: one is serving her customers’ needs as best as she can in clean and stylish ambience, and the other is to produce TV programs to meet the spiritual needs of busy Korean immigrants by having a satellite room set up in the Café.

My visit ended with her strong recommendation to watch the TV programs on Thursdays from 9 PM to 11 PM at Cox or Verizon Channel 30.

▶Address of Café at Fair Lakes: 12601 Fair Lakes Circle, Fairfax, Virginia, 22033 U.S.A.

▶Phone: (703) 272-8520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민 멜라니아

창설 25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에서 계획한 성지순례가 지난 4월30일부터 5월10일 까지 10박11일간 있었다. 4월30일 토요일 특전미사를 시작으로 본당 광호인 베드로 신부님의 인솔 하에 16명의 교우들이(신부님 포함 17명) 순례의 길을 떠났다.

신부님은 미사 강론을 통하여 성지순례와 성지에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신부님은 성지순례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참회하는 것이라 하셨다. 또한 이는 성경을 검증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그 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회개와 보속으로 영적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걸어가는 길이라 하셨다.

5월 2일 월요일

비행기에서 하루를 보내고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여 요르단에 도착하였다.

아침 첫 행선지는 느보산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방랑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도착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생을 마친 곳이다. 느보산 정상에 세웠다는 기념터(1)는 1932년에 세워진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이 관리하고 있었고 구리뱀 사건(민수기 21, 4-9)의 상징 기념물이 높이 솟아 있었다. 느보산 정상에서 서쪽을 바라보니 예루살렘과 사해가 보인다.

우리 일행은 이곳 정상에서 첫 아침미사를 드렸다. 과 신부님은 강론을 통하여 이곳이 모세가 하느님께 “가나안 땅을 주시렵니까?” 하고 여쭙어 보던 곳이라 하셨다. 또한 삶이 바뀌면 생활이 바뀐다



며 우리는 이 성지순례를 통하여 신앙생활이 쇠신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느보산을 떠나 St. George 그리스 정교(Greek Orthodox) 교회에서 모자이크로 유명한 마다바에서 제작된 모자이크 지도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예수님의 세례장소인 요르단 강, 엘리아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요르단 강을 치고 건넌간 여리고, 세례자 요한의 순교 성지 마케로스를 거쳐 십자군의 천연 요새 카락성을 순례하였다.

다시 버스로 모압의 수도 아르고 골짜기와 에돔 광야를 지나니 탈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제렛 시내가 나온다. 그들은 이곳에서도 35년을 보냈다. 하느님은 광야, 끝없는 광야가 주는 의미를 묵상하라고 이곳에 오게 하셨다. 우리 일행은 광야 체험을 위하여 버스에서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를 걸으며 당시 그들의 모습과 삶을 묵상하여 보았다.

5월 3일 화요일

둘째날, 페트라를 방문했다.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페트라(Petra)는 베드로 바위라는 뜻으로 그리스 상인들이 지어준 이름이라 한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이후의 유적이 발굴된 곳이고 동굴 무덤들이 있다. 1820년 십자군에 정복된 후 600년 동안 종족이 없었다고 한다. 이 패망에 대하여 에레미아 47장과 하바국 3장, 예제키엘 35장에서 언급되어 있다.

바위산의 좁은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가면 페트라에서 가장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알카즈네 신전(2)이 그 웅장한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낸다. 이곳은 유네스코 지정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자연 바위산을 깎아서 정교하게 건축한 아름다운 신전이다. 일행 모두가 카메라 셔터를 누



르기에 바빴다.

그 왼쪽에는 바위산을 깎아 만든 원형극장이 보인다. 로마시대의 극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페트라를 떠나 다라에소다 아라마 광야 불뱀에 물리던 곳. 제렛 시내, King's Way가 보인다. 창세기 19, 1-38에 나오는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모압족과 암만족의 기원이 이루어진 곳에 온 것이다. 이곳이 요르단 강 쪽에서 사해가 시작되는 곳으로 해저 350 미터라 하며 우리가 360 미터 해저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라 한다. 왼쪽에 보이는 검푸른 에메랄드 빛의 아름답고 거대한 푸른 바다 - 사해가 너무 아름답다. 오른쪽 절벽 위에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 우뚝 솟아있는 절묘한 풍경이 장관이었다.

5월 4일 수요일

아침 미사를 시작으로 요르단의 암만을 떠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날이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알레비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에 입성. 이스라엘 버스로 갈아타고 가이드 안젤라 자매의 인도에 따른 주요경으로 순례를 시작, 예리코로 들어갔다.

왼쪽에 보이는 산 언덕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셨다는 설이 있고 헤로데 왕의 겨울 별장이 있었다(여호수아 3장 - 6장). 예리고 시내 안에서 돌무더기와 나무들을 보았다. 자케오가 올라갔다는 나무다. 이곳은 땅 주인이 아랍인이고 여러 인종과 여러 종파가 공존하여 인종 백화점, 종교백화점이라 한단다.

유혹의 산. 이 부근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으리라.

쿠파를 향하는 길에 우리 일행은 사해 바다에 들어가 시커먼 진흙으로 머드팩을 하였다. 물 속에 누워있으니 몸이 뜬다. 잠깐 어린이의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이었다.

쿠파는 에세네파인들의 공동체가 양피지에 성경을 섬세하게 필사하여 동굴 속에 남긴 것을 1942년 잃은 양을 찾던 목동에 의해 발굴된 곳이다. 그 후 성서학자와 고고학자들이 더 발굴하고 연구하여 세상에 나온 것이 ‘사해성경’이다.

성모님 엘리사벳
방문 기념성당.



5월 5일 목요일

이스라엘에서 첫 밤을 지내고 오전 8시에 엔케르로 향했다. 사막을 1/3이나 옥도로 바꾼 기적을 일구어낸 나라다. 마싸다 요새 - 로마군의 침공을 이곳에서 3년동안 버티다가 점령당한 곳이라 한다. 엔케르와 쿨란을 지나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입성하였다.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성당에 이어 성모님 엘리사벳 방문 기념성당을 찾았다. 이곳의 한쪽 벽에 즈가리아의 노래가 각 나라 별로 적혀 있었다. 우리 말도 있어서 일행이 합창으로 기도하였다. 기념성당 사방 벽에 준비하게 붙여있는 아름다운 벽화들이 장관이었다. 이어 오른쪽에 성모 찬송 (마니파캇) 기도문이 우리 말을 비롯하여 각 나라말로 붙여 있었다. 감명 깊었다.

정오에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1500년 된 성당을 순례하였다. 동방교회가 관리하고 있고 옆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다. 300년 대에 에로니모 성인이 히브리어와 희랍어로 된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곳이다.

베들레헴 성당에 들어가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사진에서만 접했던 주님 탄생장소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 감명 깊게 기도를 드렸다. 또한 일행은 이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무죄한 어린이 동굴, 그 옆의 요셉 경당, 목자들의 들판 기념 동굴 경당도 함께 둘러보았다.

5월 6일 금요일

오늘은 주님께서 고통의 기도를 하셨던 계세마니 동산을 향하였다. 왼쪽으로 올리브 산이 보이고 맞은편이 케드론 골짜기이다. 이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주 오시어 기도하시던 곳이다. 일행은 이곳 동굴 경당에서 미사봉헌을 하였다.

다시 버스를 타고 통곡의 벽으로 향하였다. 많은 인파와 더불어 통곡의 벽의 큰 돌에 이마를 대고 죄인임을 자인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였다. 죄인을 용서하소서...

12시에 버스로 시온산을 향해 출발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며 최초로 성체와 성혈을 세우신 곳이다. 옆에는 성모님 영면성당이 있는데 성모님이 영면하시고 누워 계신 조각물이 있었다.

키드론 골짜기 언덕에 오르니 황금사원 전체가 보인다. 가야파의 집터에 세워졌다는 베드로 통곡 성당은 통곡성당, 배반성당, 회개성당이라고도 불리운다 한다. 지하에는 예수님이 갇혀 계셨던 지하 감옥이 있다. 시편 88장을 읽으며 주님께서 하느님께 부르짖던 처절한 심정을 함께

묵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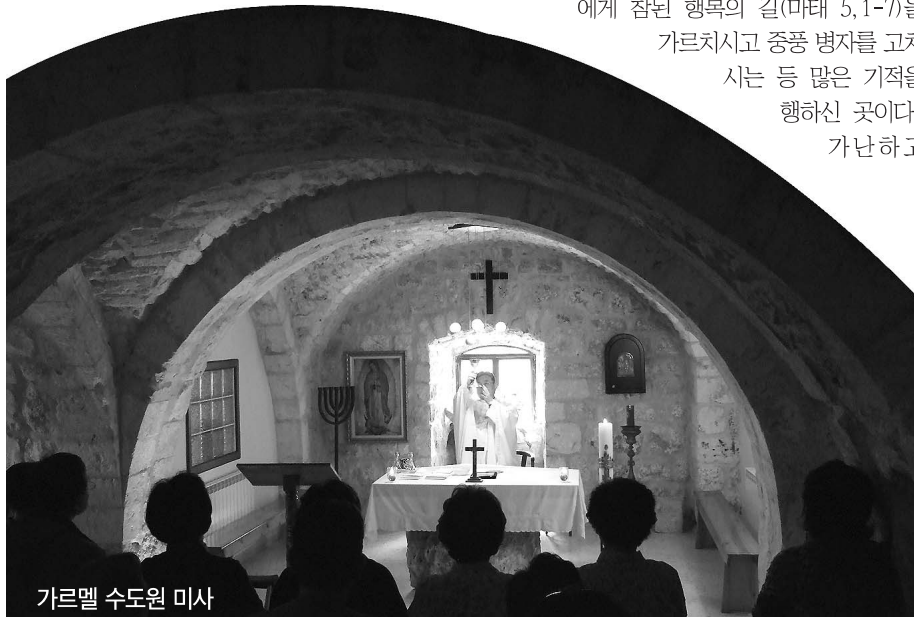
점심식사 후 주 기도문 성당으로 향했다. 이곳은 가르멜 수도원의 수녀님들이 관리하고 계셨다. 주의 기도문이 각 나라 말로 쓰여있고 우리 한글도 있었다. 이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루가 19, 37, 41-44) 올리브 산에 올랐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한 이를 고쳐주신 베짜다 연못을 거쳐 주님께서 수난하시며 걸으신 골고다 언덕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온 몸이 묶인 채 채찍질을 당하신 성당 참배를



시작으로 14처 순례에 올랐다. 순례를 떠나기 전 9일 기도를 하며 이 골고다 언덕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많은 통회의 눈물을 흘리리라 그리고 이번 순례의 정점을 이루리라 생각했던 곳이다.

신부님의 14처 기도문 인도에 따라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니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처부터 14처 까지는 한 곳에 있었다. 쓰러지신 예수님의 머리 쪽을 내려다 보시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큰 벽의 성모님 모자이크를 시작으로 통고의 성모상이 유리관에 모셔져 있는 곳에서 순례단은 떠날 줄 모르고 한참을 묵상하였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은 슬픈 어머니.



가르멜 수도원 미사

많은 참배객들에 끼어 주님의 무덤 성당을 참배하였다. 이곳에서 부활하셨다 하여 주님 부활성당(경당·3) 이라고도 한다. 이 돌 무덤 안이 좁아서 네 명씩 차례로 들어가 잠깐씩 기도하고 나왔다.

5월 7일 토요일

새벽에 신부님이 몇몇 순례객과 함께 주님무덤 성당에서 새벽미사를 집전하셨다.

아침 9시30분에 첫 번째 행선지인 엠마오를 향해 떠났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께서 빵을 떼실 때 알아보았던 곳이다 (루가 24, 13-35). 다음 순례지는 요빠. 고르넬리오와 베드로가 환시를 본 곳이다 (사도행전 10장). 환시를 보았다는 바닷가에 위치한 시몬의 집을 방문한 후 지중해 연안에 자리잡은 요빠성당 (St. Peter Church)를 찾아 보았다.

시원하고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을 옆으로 하고 가이사리아로 향하다 다시 가르멜 산에 올랐다.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 예언자 450명을 다 물리치고 죽인 곳이다(I 열왕기 18, 20-45). 산 정상에 가르멜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고 가르멜 수도 신부님들이 이곳을 관리하고 계셨다. 수도원에 들어서니 위용이 당당한 엘리야 예언자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이곳이 가르멜 산의 성모님께서 시몬스톡 성인에게 부러운 스카폴라를 주신 곳이다.

5월 8일 부활3주일

오전 8시35분에 호텔을 떠나 가파르나움으로 향해 진복팔단 성당에 도착.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마태 5, 1-7)을 가르치시고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 이곳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전한다. 우리 일행은 산상 설교를 하시던 언덕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시던 장면을 떠올려 보았다. 산 중턱에 성당을 지을 수 없어 정상에 세운 아름다운 기념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30분간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호수를 바라보며 이 지방 생선으로 점심을 한 후 베드로 수위권 성당에 참배하였다. 겐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타고 오후를 보낸 후 저녁 시간에는 전원이 그동안 느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5월 9일 월요일

오전 8시에 갈릴리 호숫가를 떠나 물고기 기적 성당으로 향했다.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성당에 도착하여 성체조배를 하였다.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 성당을 찾아 성체조배를 하고 꼭 신부님 주례로 순례에 참가한 3쌍의 부부들이 혼인갱신식을 가졌다.

다음 행선지는 나자렛. 이름없는 시골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잉태를 알린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이어 탄생 예고성당에 입당했다. 감실 모신 곳이 천사가 예고하신 곳이라 한다. 이 순례 중에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답고 큰 성전은 처음이라 감격에 찬미가 절로 나왔다.

이 성당 정면에 많은 조각상이 있고 각 나라 성모상 모자이크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모님이 한복을 아름답게 입으시고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다(4).

그 후 잉태성당으로 이동하였다. 이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러웠다. 미사 강론 때 신부님은 지금까지 많은 성지를 방문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또한 성모님의 순명과 겸손을 본받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하셨다.

오후에 타볼산을 향하였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곳이다 (마르코 9, 1-10). 높은 산 정상에 아름답게 돌로 깎아 지은 성전이 장엄하였고 정원의 꽃과 나무들이 인상적이었다. 이 타볼산을 끝으로 우리 일행의 순례는 마감되었다. 하느님, 성지순례 감사합니다.



기억이 희미하다. 철학자이었던지 그리고 언제 때 사람이었는지도 기억에 없다. 그러나 그날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는 그 내용은 내게 생생히 기억난다. 어느 날 그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한 걸인이 다가와서 구걸을 했다. 그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자 걸인은 기대에 찬 눈으로 그에게서 받을 동냥을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는 당황했다. 그래서 그는 걸인의 손을 잡고 “아이고 미안하네. 마침 돈이 한 푼도 없구먼” 했다. 순간 걸인은 감격에 찬 눈으로 그를 보면서 대답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여지껏 제가 이렇게 큰 동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다 진정한 자선이란 금전적, 또는 은혜를 베푸는 것 이전에 마음을 주는 것일 것이다. 나는 가끔 길거리의 걸인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동전을 얹전히 건네준다면 그 걸인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도 해 본다. 그러면서 자선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라기 보다 자기 스스로가 얻어지는 마음속 깊은 곳의 축복이란 것을 되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을 많이 접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면서도 다음에 꾸며진 일화를 이야기 하고 싶다.

어느 어린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시켰다. 그런데 아주 부잣집 어린이가 지은 글이 이렇게 시작됐다. “어느 곳에 아주 가난한 한 식구가 살았어요. 그들은 너무도 가난하였기에 그 집에 정원사도, 하녀도, 요리사도, 그리고 마부도 모두 검은 빵을 먹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어찌 정원사를 두고 하녀를 두고 어쩌고 할 수 있겠어, 부잣집 애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니까... 하면서 냉소를 금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도 그 부잣집 아이의 글에 실소를 하기 전에 세계 오지에 사는 어린아이에게 보내는 우리의 자선의 손길에 이처럼 부잣집 아이들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란 냉소에 찬 말을 오지의 나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들을 만한 행동을 혹시 하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두 달 전에 페루를 다녀와서이다. 나는 몇 년 전 모 단체의 자선사업에 참여하여 매 달 30달러씩 페루의 한 가난한 (?) 어린이

에게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사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내 스스로에 만족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 도움을 받는 ‘알렉시스 헤레다’라는 아이에게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작년에는 크레용 도화지, 물감을 사서 소포로 부치기도 했고, 지난 2월이 그 아이의 생일이라 해서 20달러를 따로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페루 여행 중 고산지대의 길거리 행상들로부터 손 뜨개질로 만든 조끼, 머플러, 모자 등을 사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선인장 열매를 사 먹기도 했다. 그런데 나의 몸에 뻔 버릇 때문이었을까, 값을 흥정하고, 과일도 덤으로 한 두 개 더 달라고도 했다. 그러다가 먼저 내 스스로가 시들해졌고 다음에는 흥미가 없어졌다가 나중에는 스스로가 무안해졌다. 왜냐하면 흥정이란 밀고 당기고 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얼마나 물으면 “10 달러”, 그러면 내가 “비싸다. 7 달러” 하면 그냥 웃는다. 그리고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선인장 열매는 꼭 멍게처럼 생겼는데 아주 달다. 그런데

얼마나 물으면 “1 달러에 4개” 한다 내가 “6개” 하면 그냥 6개를 준다. 그러니 맥이 빠졌다. 그러다가 그 여자 행상이 내가 도움을 주는 알렉시스 어머니

이거나 아니 알렉시스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하는 생각을 해 보니 얼굴이 스스로 붉어졌다.

내가 한 여자 행상에게서 깎은 돈이 내가 매달 보내는 돈 30달러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상상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내가 길거리 걸인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마음으로 여지껏 알렉시스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음 크리스마스에 다시 크레용을 보낸다면 “너의 동네를 아니면 동생이나 엄마를 그려서 보내주렴” 하면서 편지 한 장이라도 써 보내주고, 또 알렉시스의 생일에는 우리 가족의 사진 한 장이라도 넣어서 보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렇다. 자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인 동시에 자선을 받는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을 느끼는 진정한 자선만이 자선일 것이다.



진정한 자선

이영목 <전 워싱턴 문인회장>

몇 해 전에 이미 고인이 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내 생애 단 한번’이라는 수필집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1984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의 명문 콜럼비아 대학에 재학중이었던 작가가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잠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원도우 쇼핑이나 하자는 여동생에게 끌려서 한 쪽 다리를 저는 장 교수는 낡은 청바지와 허름한 티셔츠를 걸치고 목발을 짚고 의류점들이 집산해 있는 명동에 갔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어떤 진열장에 걸려 있는 흰색 원피스가 마음에 든다고 하며 입어보겠다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몸이 부자유스런 장 교수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동생을 탈의실로 안내한 후에 무심히 창밖을 내다보던 주인 여자가 그녀를 보고는 흠짓 놀란 얼굴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대금 “나중에 와요. 손님이 있는 거 안 보여?” 하고 내뱉듯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영문을 몰라서 눈만 멀뚱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목소리를 한 옥타브 더 높여서 “나중에 오라는 말이 안 들려? 지금은 동전이 없대구요!” 하며 아침부터 재수없다는 듯 불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애인들에 대한 노고

박평일

몇 달 전 토요일 오후에 워싱턴DC에 있는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학인 갈러뎃 대학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를 구경했습니다. 장명희 교장 수녀님이 인솔한 중추 성심학교 청각장애 청소년 야구팀과 갈러뎃 대학 야구팀 사이에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야구경기엔 문외한인 제가 무더운 주말 오후에 20마일 이상을 운전해서 생전 처음으로 야구경기를 직접 관전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입장료가 무료이기는 했지만...

경기 며칠 전에 후배 R로부터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관객 330만 이상 동원에 성공했다는 강우석 감독의 영화 ‘글러브’ CD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저녁식사 후에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저녁 내내 흐느끼는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영화 내용은 왕년 MVP였지만 폭력에 연루되어 프로야구계에서 축출되어 백수가 된 김상남 투수가 성심학교 야구팀 감독을 맡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청각은 야구경기에서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청각을 상실한 장애인들로 구성된 야구팀을 훈련하여 고교야구 봉황기 대회에 출전시켜1승을 거둔다는 목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과묵하고 사고뭉치인 김 감독은 절망을 하며 여러 차례 감독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구 정철수의 피눈물 나는 우정, 나원주 교사의 격려에 힘입어 부정적인 선수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고 후천적 청각장애로 절망 속을 헤매고 있던 차명재 투수를 선발해서 봉황기 출전의 기적을 일궈내게 됩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듣지 못해도 소리질러!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소리 질러! 넌 녀야!” 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그들 가슴에 호소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기 이전에 가슴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경기는 영화에서 충주 성심학교 야구팀이 고교야구의 명문인 군산상고팀에게 32-0으로 패하듯이 미국 캘러멧 대학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가 경기를 관람하며 흘렸던 눈물은 장영희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휴머니즘이 흐리는 인간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It is silly not to hope. It is a sin(희망을 버리는 것은 바보같은 것이며 죄악이다)”하고 독백하며 흘렸던 바로 그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장애인’ 하면 금세기 세계 200대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오른 말하지도, 듣지도, 볼 수도 없는 삼중고의 시련을 이겨낸 미국의 헬렌 켈러 보다, 심청전에 나오는 주인공 심봉사가 연상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들마저 부끄러워하고 사회에서 온갖 박해와 천대를 받아 온 한국의 장애인들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와서 가장 놀랍고 부러운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장애인들은 한국처럼 귀찮고 재수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친구이고 이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혼자 힘으로 자기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인구의 20%이며 점점 그 수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생명도 자기 자신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한 생명체가 완성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누구나 ‘너’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장명희 교장 수녀님, 지도 여선생님, 감독, 코치, 그리고 양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알려진 그날의 포수 길원 군의 싸인을 받은 야구공을 선물로 받아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구공을 쳐다볼 때마다 헬렌 켈러와 그녀의 위대한 스승 앤 맨스필드 설리반이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하곤 합니다.

헬렌: 사랑은 꽃의 향기와 같습니까?

설리반: 사랑이란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이란다. 구름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지. 너도 비를 맞아 보았지? 햇빛을 쬔고 난 뒤에 비가 내리면 땅 위의 나무들과 꽃, 풀들은 너무나 기뻐한다. 비를 맞아야 쑥쑥 자라거든. 이제 사랑이 무엇이지 알 수 있겠지?

헬렌: 예, 선생님.

설리반: 사랑이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란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들은 행복할 수가 없단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하느님 사랑의 섭리를 발견한다. ‘천리 길도 지척인 듯’이란 말이 있지만, 반대로 ‘지척이 천리인 듯’ 싶은 상황 -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인생 여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 택한 길로 가도록 허락받지 않았다. 우리는 지름길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설계하지만, 그 계획은 대부분 생각대로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상과 포부를 갖고 살아간다. 옛사람들은 이를 ‘청운(ambition)의 꿈’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익은 감처럼 그냥 떨어지는게 아니라, 싸우고 노력해서 얻는다는 사실

“몽둥이 찾는 동안 도둑 도망간다”는 말이 있다. 우리 인생이란 준비하는 동안 다 가버리는 게 아닌가 싶다. 현대사회에서 보통 사람이라도 대학까지 16년을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살만한 자리를 찾는데 또 시간이 흐른다. 준비하는 세월에 축지법은 없다.

나라의 역사이건 개인의 일생이건 간에 거기엔 걸어야 하는 광야의 길이 있다. 우리 생각엔 지름길이 있을 성 싶는데, 하느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어떤 길을 택하든지 우리가 하느님의 크신 뜻 아래 살고 있음을

인생여정

오영환 <동부그룹 국제업무 담당 사장>

도 알고 있고 실제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꿈의 실현을 향한 직선 코스에서 밀려났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사막같이 막막한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듯 느껴질 때도 있다.

가정 생활, 사업 경력에서 무익한 방황을 통해 얻은 마음과 육체의 병, 피로에 좌절하고 실망하기 보다 이제 우리는 이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과 배려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과거의 방황, 후회에 실망하고, 후회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 보다 하느님이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심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

야 한다. 나의 과거를 내가 합리화 하는것이 불신앙이고, 게으른 자의 변명이고, 약한 자의 오만이라면, 나의 과거 -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고 의인의 가르침이라 생각된다.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가장 먼 길이라도 목적지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광야, 사막의 길도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 구절도 있듯이. 아직 별 볼일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같은 세

상에서 헤매며 탄식하며 사는 사람, 신

앙 생활의 행로속에 혼란의 와중에 빠진 무리를 하느님은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신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는 하느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느님, 장래에도 내 앞의 험산 준령을 당할 때에도 도와주소서~



여름 휴가비용과 세금공제

노상문 <공인회계사>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게된다. 이러한 여름 휴가계획을 비즈니스와 연관 지어 잘만 세운다면 여행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직업교육과 관련된 클래스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휴가도 즐기면서 여행경비를 공제할 수 있으니 바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름 휴가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행 목적이 비즈니스와 우선 관련이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행에는 Trade Show나

Convention에 참석한다든지 직업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위한 강좌나 세미나를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시장조사나 투자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한 여행도 사업상 성격이 강하다면 비즈니스와 연관지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이란 비즈니스 일수가 개인 휴가일수 보다 많아야 한다. 국내여

비즈니스와 연관된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

일주일 미만 해외여행도 사업경비 공제 가능

행인 경우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을 결정하는 명확한 선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행중 대부분의 날을 비즈니스를 위해 보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날짜를 계산하는데 여행을 출발하

고 도착하는 날은 각각 비즈니스 날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열흘간 플로리다 올랜도로 휴가를 간다고 하자. 가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하루 이틀이 걸리고, 4일 동안 세미나 참석을 하고, 나머지 4일은 디즈니월드 구경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는다고 가정하자. 전체 열흘간의 휴가 기간중 비즈니스 날짜가 6일이 되기에 6일간의 교통비를 포함한 여행경비는 모두 공제된다. 물론 부대비용으로서 호텔비, 택시비, 렌트카, 세미나 비용과 세탁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으며 식사비는 50%가 공제된다.

한편 외국으로 비즈니스를 겸해서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일주일 미만의 외국여행이라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날짜가 적어도 4일이 넘어야 한다. 출발과 도착일은 각각 하루로 계산하기에 이를 포함하여 4일을 넘으면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으로 간주되어 모든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일주일 이상의 장기 외국 여행이라면 사업 비용과 개인 비용을 구분하여 처리하되 전체 일정의 75% 이상을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사업비용으로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겸 휴가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록보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날짜, 여행목적, 비용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고 75불 이상이 되는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문의: 7023 Little River Turnpike #202, Annandale, VA, 22003, 703-533-7200



‘WBS워싱턴TV 방송’ 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Cox Ch. 30/830, Verizon Ch. 30 동시방영

수	금	일
오후 9:00 ~ 11:00	오후 9:00 ~ 11:00	오전 7:00 ~ 9:00
9:00 생명의 말씀	9:00 세계속의 한인	7:00 행복으로의 초대
9:30 WBS초대석 앵콜 재방영	9:50 가정 큐티	7:30 오늘의 양식
10:00 건강 플러스	10:00 영혼의 양식	8:20 형제의 소리
10:20 MBC Net 다큐	10:15 파워 특강	8:50 5분 묵상

*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유익한 하상문화방송은

1. 한국의 대표 가톨릭방송인 평화방송 TV의 수준높은 콘텐츠로 프로그램 편성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교양/강좌/음악/신앙/교리/성경/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합니다.

2. 자체 제작프로그램 방영

잔잔한 감동으로 삶에 활력을 충전시켜주는 곽호인 베드로 신 부의 **밤의 명상**.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안나수녀님께 물어보세요** 등 자체 제작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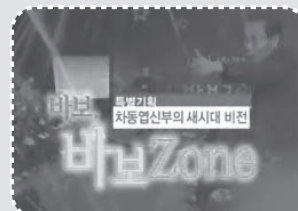
9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소개



평화방송 특집 다큐

고 김수환 추기경 추모 특집(3부작)

일시: 9월1일, 15일, 22일 오후 10시



차동엽신부의 새시대 비전 '바보 바보 Zone'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황창연신부의 외로우십니까? 3부 화나십니까 3부

일시: 9월1일, 15일, 22일, 29일 오후 9시



유시찬 신부의 성이나시오 영신수련 깊은데에 그물을 쳐라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홍세실리아 강사의 라인댄스 초급 3

Eee Zee Boogie, Shuffle Boogie Soul (SBS)

하상문화방송 편성표는 매주 수요일 중앙일보 종교면에 게재됩니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stpaulchung.org로
들어가시면 동영상 및 매주 방송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상문화방송 후원문의: 703-968-3010, 703-675-9681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성심학교 야구부

황운재 프란치스코 <캘러멧 대학교 농교육 박사과정>

싱그러운 5월 햇살을 담은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워싱턴을 일주일간 방문했습니다. 충주 성심학교는 한국 최초의 가톨릭 재단으로 설립된 특수학교로 농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997년부터 2000년 까지 3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떠나 미국으로 유학을 온 지가 벌써 햇수로 10년을 채우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어가는 학교 홈페이지 (<http://sungsim.sc.kr>)에서 혹은 성심학교 선생님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학교의 변화들과 그 중에서도 야구부의 탄생과 노력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았지만 야구를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긍정적 교육 효과들에 대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나 하나 준비되었고 드디어 2002년 9월9일 귀의 날에 대한민국 쉰 세 번째 고등학교 야구팀으로 정식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상존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속적으로 야구부를 꾸려나갈 재정적 어려움, 늦깎이 야구 입문으로 인한 상대적 연습부족, 선수들이 농인이다 보니 야구 경기중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변별에 대한 어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저 역시 야구에 관해선 문외한이라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구 선수 출신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빌면 처음 농인으로 구성된 야구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외야수의 경우 타자가 치는 타구음을 듣고 낙하 지점을 예상해서 재빨리 뛰어가 몸을 다시 뒤로 돌려 공을 잡아야 하는데 농인의 경우 타구음을 듣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뜬 공을 잡기 위해 두 명의 선수가 같이 뛰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한 명이 자신이 공을 잡겠다고 동료에게 소리쳐 알려주어야 하는데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농인들에겐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은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 때 선수들은 동료가 내지르는 함성을 듣고 힘을 다시 내고 집중력을 찾아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인들에겐 이런 응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미국으로 유학을 온 탓에 야구부가 결성되고 운영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지 못 했던 미안함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미국 방문이 결정 되었고 숙소문제, 야구 시합 일정, 미국 내 농학교 방문 문제들을 함께 준비하는 동안 그 미안함들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일정을 준비하는 내내 녹록치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야구 시합 일정과 촬영 협조 요청, 캘러멧 대학교와 부속 농학교 방문 일정 조율, 교통편예약 등 일들이 겹쳐질 때면 힘에 겨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을 때쯤 성심학교 야구부 방문을 알고 도움을 나누

어 주시려던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이번 방문 일정은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임신부 곽호인)과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도움이 너무도 컸었습니다. 일정은 물론 자원활동자들을 통한 식사제공, 버스편 제공, 관광에 관한 편의 등이 거짓말처럼 착착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정이라 교장



수녀님께서는 아이들 배고픔과 걱정되어 빵에 발라먹을 사과잼을 손수 만들어 가져오시려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족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곳 원주 카리타스를 중심으로 하나 둘 나누어주신 한인 동포분들의 사려 깊은 사랑들이 모여 풍성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야구부장인 박정석 선생님은 “많은 비용이 필요한 미국 방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성심학교 야구부의 이야기인 영화 <글러브>의 상영 이후 MBC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미국 방문의 최소 경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권을 확보하였으나

체류 경비와 체협 경비를 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원주 카리타스 후원회와 워싱턴 DC 한인동포들의 도움으로 호사스러우리 만큼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일주일의 일정을 지냈습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심학교 야구부 아이들이 방문했던 지난 5월 4일에서 5월 11일까지는 날씨마저도 상쾌했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워싱턴 대성당(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졸음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차창 밖으로 내다 보이는 다른 풍경에 연신 신기함을 머금은 표정들 이었습니다. 대성당의 크기에 두 눈들이 대성당보다 더 커졌다가 70여개에 이르는 소성당들을 보면서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고개를 꺾어 천정 벽화를 바라보는 아이들 눈빛은 신기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성당 뒷편 골짜기 뒤편 파이프 오르간이 그리도 신기했는지 언제 연주할지 하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몇 번이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성당 내부에 장식된 다양한 민속 의상을 입은 성모님들을 보면서 한국 성모님은 어디에 계신지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성당 입구 양쪽 옆면에 장식된 부조에 조각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 성모님을 보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감지름 쪽 뺨을 가리키며 제가 먼저 찾았다는 듯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서는 벽면에 새겨진 기부자들의 이름 중에서 미국인의 영웅 중 한명인 야구왕 베이브 루스의 이름을 찾아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어서 베이브 루스 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겠다는 다짐들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사당, 백악관, 항공 우주 박물관, 그리고 링컨 기념관을 차례로 돌아보는 내내 아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오바마 대통령 이름을 크게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무슨 소린가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얼굴을 빼죽 내밀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성심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학생들로 백악관앞에도 링컨 기념관 앞에도 복잡했었습니다. 그 중 오하이오에서 온 한 여학생이 아이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궁금했던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운동팀인지 물어왔고 급기야 그 여학생과 준호는 기념 촬영까지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둘째 날엔 캘러멧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캘러멧 대학교는 세계에서 유일한 농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된 종합 대학교입니다. 학교 내에서 사용되는 제 1언어는 수어이고 영어는 책을 읽고 과제를 내기 위한 제 2언어 취급을 받는 곳이 이 곳 갈라루엣 대학교입니다. 모든 수업이 수어로 진행되고 있으니 농인들에겐 최적의 학습 환경이자 생활 환경인 곳입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캘러멧 졸업생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농인 사회에서 지도자급으로 인식되고 그 농인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캘러멧 진학에 뜻을 보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캘러멧 야구 선수가 되어서 야구도 하고 농인으로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정체성도 가지고 싶다는 김원이, 유학을 와서 캘러멧에서 미국 수어도 영어도 배워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 한국 농인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준석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그저 말로만 듣던 캘러멧 대학교 교정을 직접 걸어 다닌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오후엔 다음 날 있을 야구 시합 상대팀인 캘러멧 부속 고등학교 (Model Secondary School for the Deaf) 야구부 학생들과 함께 볼티모어로 메이저리그 야구시합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했을 법 한데도 아이들은 너무도 쉽게 어울렸습니다. 미국 수어와 한국 수어를 비교하고 궁금해 하면서 서로의 언어도 배우고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볼티모어까지의 길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 아이들이지만 야구라는 공통분모가 이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똑같았던 하민호 코치와 라이언 코치는 어느새 마음이 맞아 연신사진을 찍느라 아이들보다 더 들떠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경기를 보면서도 아직은 서로를 이해할 수 어가 부족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눈빛만은 서로를 격려하고 어느새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렵게 이 곳 미국까지 왔지만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야구 시합이 열리는 셋째날, 아이들은 다소 긴장했는지 몸이 둔해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몸을 풀고 있던 아이들을 물끄러미 지켜보시던 박상수 감독님께서서는 시차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역사적인 첫 시합이 우리 눈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심판의 우렁찬 시작 신호와 함께 성심학교의 공격으로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1회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던 성심학교가 안타깝게도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던 3회를 분수령으로 경기 분위기가 부속고등학교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시차적응을 걱정하시던 감독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고 감독님의 싸인을 잘 못 보고 뛰지 말아야 할 시점에서 뛰다가 어이없게 아웃 되기도 했습니다. 낮선 환경 탓인지 평소에 잘 치던 아이들도 불에 그만 방망이가 나가는 실수도 여러차례 보였습니다.

응원원신 동포들과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캘러멧 외국인 유학생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태극기를 흔들고 합성으로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힘차게 휘두른 방망이가 허공을 가를 때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도 실수로 놓칠 때면 땅이 꺼져가 발을 구르며 아쉬워했습니다.

비록 시합에서는 졌지만 그리 높지 않은 실력차를 확인했던 것과 우리와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타석에 섰던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속 고등학교 투수의 공이 그리 빠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야구부장 선생님과 감독님은 경기내내 너무 긴장하고 서두르고 있다고 아이들의 다독였지만 아이들은 쉽게 안정감을 찾지 못 했습니다. 하지



만 아이들은 열심히 경기에 임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구부원 중 두 명이 공교롭게도 제가 성심학교 재직중 유치부를 맡았던 시절 우리반 아이들이었습니다. 잠시라도 교실을 비우면 장난감을 꺼내 말쑥부리던 그 다섯살 짜리 꼬마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커서 야구부가 되어서 미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심학교에 재직할 때 나이 든 선생님들께서 동문회에 참석한 누구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유치부때 이러이러 했지라고 놀리는 모습이 너무도 부러웠었습니다. 그만큼 쌓인 교육 연륜이 부러웠고 아직도 그 들을 잊지 않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따스함이 부러웠기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렇게 말할 친구들이 생긴 셈입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지 못하지만 제 인생에서 맺어진 그 소중한 인연은 두고 두고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어느새 일주일 일정은 지나고 공항으로 서둘

러 갔습니다. 출국 수속을 하고 하나 둘 출국장으로 가는 뒷 모습이 너무 그리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준석이가 내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옛날 준석이가 다섯 살 무렵 놀다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제가 안아주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이렇게 커서 그래도 부족했지만 선생님이었다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성심학교 야구부 아이들과 지낸 일주일은 기적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기적은 나눔의 실천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나누어 더 큰 하나를 만드는 것이 기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지요.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나눔과 함께 하나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냐 이 곳에 있는 이 가난한 이들이 또한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내 부모이고 형제”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난 일주일 우리 성심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주님안에서 그 뜨거운 형제애를 느꼈습니다.

그 고운 마음들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아이들의 뒷 모습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든든한 발걸음으로 어느새 변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훌쩍 커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전과 희망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또 다른 행복함으로 성심학교와 저의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정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주님께 또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 성심학교 야구부의 일정에 함께 해준 곽호인 신부님과 원주 카리타스 회원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충주 성심학교 야구팀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성모회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WAWA Tours / 스티브 최

한스관광/데이빗 한

Duo Distributors / Jenny Kim

뽕뽕는 작은 마을 / 최기용

Fairfax Memorial

Garvey, Cheryl

MS Foods / 김호연

길형기

김남식 다비드

김남식 안드레아

김명철 / 데레사

김문겸

김웅렬

박병학 / 박미순

박용걸 / 완다

소근화

신세균

심복귀 베로니카

이경숙 마리아

이병기 / 김숙자

이원석

인인지 마리아

조 프란치스코

최성태

최평란 / VA 글로벌 어린이 재단

위싱턴 글로벌 어린이 재단

한 데레사

한지윤

홍 세실리아

황원균 / 황영문

주미대사관 문화원 / 남진수 원장

Special Thanks

황윤재 프란치스코

유철수

언론사

WKTV, WBS-TV, 중앙일보

한국일보, 주간 위싱턴

미주 평화신문

충주성심 야구부 후원 1004모집



농아인 야구부 학생들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활동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 대부분이 농아인 부모, 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장비, 훈련비용, 양말 한 켤레까지 모두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야구부 활동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천사분들을 위해 미사봉헌을 하고 야구부 소식지 및 교지를 보내드리며, 세금 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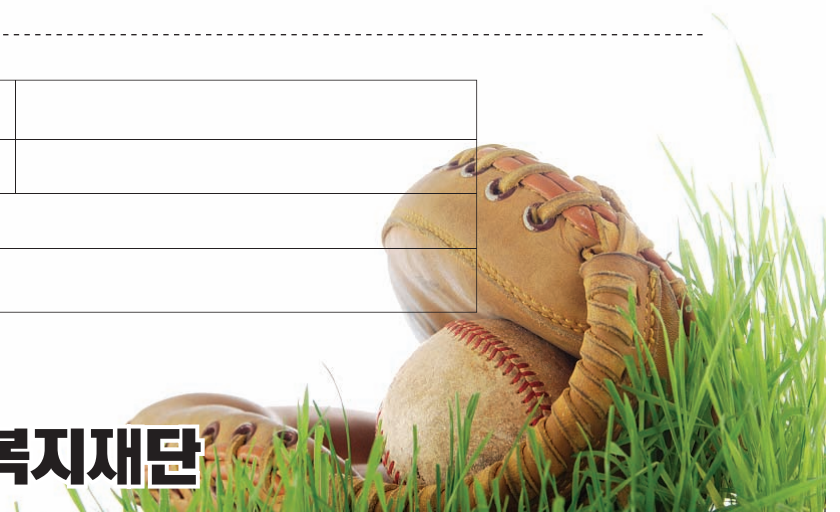
1004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학교 홈페이지: www.sungsim.sc.kr
- 문의: 571-432-9868
- 수표는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로 보내주세요

천사성함		연락처	
E-mail		기도신청	
주소			
후원금액	매월 ☐ \$10 ☐ \$20 ☐ 기타 ()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



루치아 쉼터 10주년 기념일 “축하합니다”

원주 카리타스 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모성월이라 들녘이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신록의 계절에 아카시아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 저녁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희 10주년을 기억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심에, 그리고 특별 성금 \$4,000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이들 방과 거실이 예쁘게 단장되어 쾌적합니다.

저희가 보낸 환경수세미는 그리 상품가치는 없을텐데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니 뿌듯합니다.

올해 10주년을 계획할 때는(지난해 아이들이 연극을 하고 싶어 하여) 소공연장을 빌려서 손님들도 좀 초대하여 저희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였는데 연극 주인공

중 하나가 대학진학을 하고 싶어하여 수능준비로 바빠서 생략하고 평소 아이들 기초학습 등을 봉사해 주시는 분들과 운영위원 몇분을 쉼터로 초대하여 아주 조촐하게 하였습니다.

장소가 좀 좁긴 했지만 복지회 흥신부님께서 미사드려 주시고 최신부님은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오셨어요. 비가 오는 날인데도 30여분이 함께 해

주셔서 그런대로 의미있는 하루 였답니다. 부분적이긴 하나 10주년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잊지 않고 챙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모님 사랑 듬뿍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도와 사랑 안에서

유 헬레나 올림



겨울이 다가오면 강원도 산간 지역의 독거노인가정, 조손가정 등 어려운 가정에게 난방비란 가장 버거운 문제이다. 이를 돕기 위해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박호인 신부)은 매년 미용 이벤트 등 모금운동을 통해 이들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보낸 1만 달러의 성금은 영월

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난방비 후원에 쓰여졌다. 난방비를 지원받은 가정들이 후원자님들 덕분에 유난히도 눈이 많았고 추웠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왔다.

〈편집실〉



엘레나 유류지원 증서 전달.



데우타우 연탄지원 증서 전달.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군에는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145개의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들은 대부분 남편이 나이가 많고,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주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에서 보내온 후원금으로 다문화 가족 3가정의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엘레나씨는 필리핀 주부로 2007년 1월 결혼하여 남편과 4살 된 아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결여로 남편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 생계를 위해 엘레나씨가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가정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는 엘레나씨는 난방비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연탄지원을 받은 데우타우씨는 베트남 주부로 2006년 남편과 27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데우타우씨는 어린 나이지만 남편과 자녀가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하며

예쁘게 한국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정한 직장이 없어 데우타우씨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시내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데우타우씨는 바쁜 가운데서도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오후 4시에 직장인을 위하여 운영하는 한국어 반에 등록하여 한국어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으로 영월군 다문화가족 3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우리집에 기름을 넣어주셔서 우리집이 지금 너무 따뜻해요.

올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춥다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영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선생님께서 후원자님이 난방비를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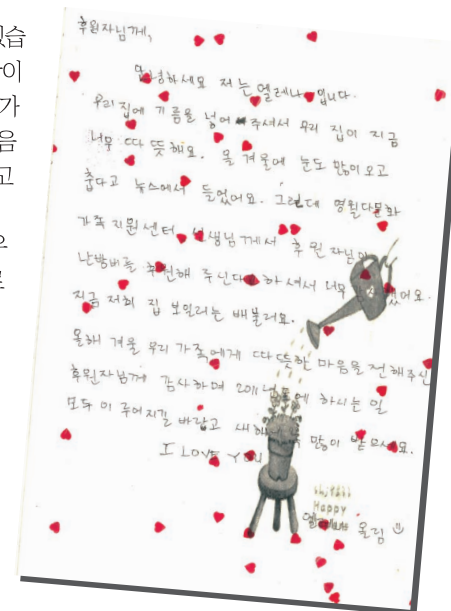
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저희 집 보일러는 배불러요.

올해 겨울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하며 2011년도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질 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LOVE YOU.

엘레나 올림



산타가 되어투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박호인 신부)은 2010년 세번째 ‘산타가 되어주세요’ 기빙 트리 캠페인을 벌였다. 네팔(202명), 필리핀 빠아파스(212명), 한국(346명), 파푸아 뉴기니(132명) 등지에서 892명의 아동으로부터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았는데 912분이 산타가 되어주셔서 총 18,250 달러가 모금되어 아동들이 모두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훈훈한 사랑 나눔의 행사가 되었다.

또한 복지재단은 페루의 16살난 소녀가 아킬레스 근에 문제가 있어 잘 걷지를 못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술 및 재활에 필요한 금액이 2,000달러 정도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뜻 후원자 한 분이 2,000달러를 기부해 주시며 산타가 되어 주셨다.

필리핀과 네팔에서 보내온 감사편지를 전해드리며 불우 아동들이 따뜻한 성탄을 보내게 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실)



필리핀 빠아파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빠아파스 어린이들의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아이들에게 ‘산타 되어주기’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수녀들은 이틀에 걸쳐서 아이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이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선물을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저희 수녀들이 더 기뻐했습니다. 선물을 사느라 점심이 훨씬 지났는데도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각자의 봉투에 이름을 붙이고 꼬리표를 붙이면서 서로 바가지도 록 주의를 했습니다. 200여 개가 넘는 선물을 한 대의 차에 싣기가 부족



했기에 한인 성당 자매님의 도움으로 차량을 한 대 빌렸습니다.

빠아파스 성당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기도를 시작으로 선물을 나



누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적어낸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은 기쁨에 넘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물을 풀어보고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쁨을 안겨주신 원주 카리타

스 복지재단의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결연 아동에게 보내주신 후원자님들의 결연금도 잘 받았습니다. 이곳 필리핀은 6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보내주신 결연금을 새학기 때 학비와 학용품 구입에 사용하려 합니다.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대신 전해주시시오.

이곳에서 아이들이 감사의 편지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빠아파스 어린이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모썸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산타 되어주기’ 선물을 나눠줄 때 찍었던 사진을 첨부합니다.

가말라 수녀 드림

산타가 되어투셔서 감사합니다



네 팔

Dear Caritas Wonju,
Loving greetings from all of us.

We, the Shanti Rani teachers and our children are extremely happy for sending us "Christmas gifts" for our poor children. We are very grateful to you all who contributed to sending the gifts. May the Good God shower abundant blessings to you all.

Thank you also for remembering our poor children. They will get warm school uniform.

How are you all? Hope you are fine and in good health.

You are most welcome to Shanti Rani school. Please do come.

Yours sincerely,

Sister Imelda



원주 카리타스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산티 라니 학교 선생님들과 아동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신 원주 카리타스 회원님들 덕분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불우 아동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동들은 따뜻한 새 교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회 되시면 산티 라니 학교를 꼭 한 번 방문해 주세요. 이멜다 수녀 드림

나마스떼.

겨울방학을 맞아 히말라야 트레킹 오신 손님들로 매일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2월 17일) 산티 라니 학교에서, 산타클로스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나눠주고, 학교 옆 공터에서 전교생이 소풍 겸 작은 운동회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산타 선물은 겨울용 스웨터와 양말, 모자를 수녀님이 준비하였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것으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할 수 없어 같은 것으로, 수녀님이 그날 소풍 간식 준비하시고 아이들과 조출한 성탄 행사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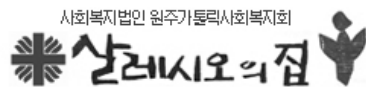
참 감사한 성탄입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 보다 큰 선물은 없을듯 합니다.

이런 행복한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네팔에서 김지나 레지나 드림

시설 소개

살레시오의 집 공동생활가정



충북 제천시 베론성지에 위치한 '살레시오의 집'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1989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일상생활 훈련, 직업재활 훈련, 의료적 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통합화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50명이 생활하는 '살레시오의 집'에는 장애인들의 작업장인 허브농장 '살립

터'도 있고,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 group home)도 있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화를 위하여, 살레시오의 집 작업장과 그룹 홈에서는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함께 일하며 공존하는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시설 생활인을 '가족'이라 부르며 '사랑이네' '소망이네' '행복이네' 등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의 지적발달, 정신적 안정, 사회적 적응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호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내온 글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소개한다. <편집실>

희망이네

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희망이네 반은 세월과 시간이 무색 할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늘 곁에서 담임선생님을 해맑게 웃으며 도와주는 김태두 가족! 다른 사람마저 기분을

항상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지는 않지만 기분이 좋아지면 한 없이 좋아지는 김용철 가족, 항상 말쑥을 달고 살며 가끔은 멋쩍은 웃음으로 담임선생님 기분 좋게 하며 교사나 가족들에게 장난을 치며 복도를 뛰어 다니며 가족들과 교사들에게 화풍이를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나성주 가족, 아침 청소 시간에

항상 말을 하지 않아도 걸레를 가져와서 복도와 방을 잘 닦으며 웃음을 잃지 않고 잘 도와주는 이상우 가족, 말없이 묵묵히 지내는 이형우 가족, 시설 어른으로 항상 묵묵히 지내시는 이종택 가족.

이렇게 희망이네 반은 행복하게 보내며 다양한 프로그램(나들이, 사회 적응 훈련, 야간 프로그램, 여름캠프)을 통하여 자립심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응

훈련 등의 프로그램은 시설에서의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언어적인 대화는 잘 통하지 않으나 행동과 마음으로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가족입니다. <김광국>



좋게 만들며 가끔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부끄러움을 많이 티는 편이지만 반장으로서 맡은 일을 항상 성실히 수행 합니다.

항상 다른 가족들을 잘 도와주며, 다른 가족들의 이부자리(취침준비와 정리 정돈)를 매일 담임선생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말없이 묵묵히 도와주는 착한 권상일 가족,

달님이네

지난 해 달님이네 반은 눈꽃 축제, 윷놀이 대회, 나들이로 대구 두류공원에서 벚꽃 구경도 하였습니다. 클래식 공연 관람도 했는데 태도가 아주 훌륭했다며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딸기 밭에서 직접 딸기도 따서 서로에게 먹여주고 여름에는 덕동계곡 물놀이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물싸움으로 흠뻑 젖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물놀이 후에 먹는 옥수수 정말 꿀 맛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밤은 호프집을 찾아 분홍빛 웃음을 가득 채웠고 두 잔, 세 잔 마시며 기분이 좋아져 애교 만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서로 웃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름캠프는 동강으로 다녀왔습니다. 바지를 걷고 모자를 쓰고 손에는 다슬기를 잡아넣을 커다란 주머니를 하나씩 들고 가득 채워 보고 싶은 희망으로 열심히 다슬기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물속을 들여다보고 한 개를 잡으면 우리들은 손에 잡은 다슬기를 번쩍 올려 큰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심마니가 기쁨으로 소리치듯 우리 가족

들엔겐 다슬기 하나가 산삼처럼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잡은 다슬기를 함께 씻어도 보고 끓여서 서로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름캠프에서 느꼈던 행복은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수줍음이 아주 많았던 장영혜 가족은 여름 캠프 동안 자신의 용돈을 써서 화장지와 과자를 사왔으며 사온 과자를 가족들과 나눠먹는 즐거움도 배웠습니다. 슈퍼마켓 가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웠던지 "화장지 사올까요? 과자 사올까요?"라며 주머니 속의 돈을 보여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엔 슈퍼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인사해야 한다면 저의 손을 잡고 슈퍼로 달려가 "다음에 꼭 또 올게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돈에 대한 가치와 쓰는 즐거움, 나눠 먹는 즐거움을 안 것 같습니다. 가끔씩 자신이 좋아하는 가족과 교사 수녀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돈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슈퍼에 가자고 합니다.

이렇게 달님이네 가족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옥란>



살레시오의 집 공동생활가정

감동이네

저희 가정은 체험 홈으로 구성된, 6개월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가정입니다. 시설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닫지 못해 머리 동절 했던 일, 지하를 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층수를 잘 못 눌러 15층에 가서 당황한 일, 옆집에 가고 싶어 나갔으나 초인종을 몰라 누르지 않고 서 있었던 일, 밥술에 밥을 하고 취사를 누르지 않았던 일, 신나게 차에서 먼저 내려 뛰어갔으나 우리 집을 못 찾았던 일. 이랬던 가족이 현관문은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면 먼저 누르고, 수시로 옆집에 놀라가서 맛있는 것을 얻어 와서 교사에게 내밉니다.



퇴근길에는 현진 에버빌이 보이면 '우리 집이다~'라며 한 번에 찾아내는 센스까지...

이젠 누가 뭐래도 왕암동의 주민으로 회의에도 참석하고 경비아저씨한테도 인사하며 우리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낯선 환경이라 좌충우돌 하지만 즐겁고 감동적으로 사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왕암동에 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길씨 표 커피 드시러 오실꺼요?

글로리아 홈

우리 반은 2010년 9월에 새로이 결성된 공동생활 준비가정이다. 프리 그룹 홈 (free group home) 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반의 팀워크를 다져 나가고 있다.

우리 반원을 소개 하자면 제일 나이가 많은 김덕호



씨를 비롯하여 오경현 씨 그리고 설거지를 잘하는 김훈조 씨, 마지막으로 밥 짓기를 잘하는 이기영씨 이렇게 4명이 살고 있다.

반 이름을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회의 끝에 글로리아로 하자고 결정하였다. 우리가 이런

게 시설 생활이 아닌 일반 가정처럼 나와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에 그 영광을 다시 하느님께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반이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팀워크 부족하기는 하지만 서로가 협동하려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길 기도해 본다.

아침에 기상을 하면 이기영 씨가 밥을 짓고 식사가 끝나면 김훈조 씨가 설거지를 하고 오경현 씨는 걸레를 들고 거실과 자신의 방을 닦는다. 김덕호 씨는 커피 마시기를 좋아하여 방을 닦은 후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아침일과를 마치면 이기영 씨와 김훈조 씨는 출근을 서둘러 한다. 나머지 가족은 시설(살레시오의 집)로 가서 치료, 교육, 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다. 공동생활가정에 돌아와선 각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저녁기도를 마친 후 TV를 시청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지내다가 취침 한다.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좋다고 반원들은 이야기한다. 이 글을 통해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각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드린다. <박동수>

무엇이 성공인가

-랄프 왈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원주후원회 소식

흑빛에 찾아온 봄

이아름 <흑빛지역아동센터 교사>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던 고한의 길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기운이 만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봄빛에 나온 어린 새싹은 싱그럽기만 합니다.

이곳 흑빛공부방에도 이제 막 싹을 틔운 귀여운 1학년 동생이 9명이나 생겨 한층 더 시끌벅적한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같이 지낸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어색해하는 동생들의 실내화를 챙겨주거나 식사시간에 양보를 하거나 책을 읽어 주는 등 친동생처럼 살뜰히 챙기는 흑빛친구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나면 공부방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땀방울 가득 옷은 얼룩룩하며 배꼽인사를 하는 개구쟁이들과 새침때기 공주님들로 공부



방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꺼내놓는 수다쟁이 친구들과 웅기종기 앉아서 책을 읽는 독서과 친구들, 최근 공부방 내 최고 놀이인 솔래잡기를 하느라 정신없는 개구쟁이 친구들을 보면 넘어져 다칠까 걱정이지만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앞에서 썰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생일이 있는 달에는 더욱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이곳 공부방, 즐거운 생일파티며, 자원봉사자 선생님과 신나는 놀이도 하고, 커다란 케이크와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부방을 가득 메웁니다.

4월부터 본격적인 역사공부가 시작되었는

데,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우리 흑빛친구들이 아니지요!! 어설피 숨쉴지만 직접 선사시대의 토기를 만져보기도 하고 선사시대의 생활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씩 적응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저 예쁘게만 보입니다. 서울 암사동으로 떠난 4월 졸도여행에서는 그 동안 배운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여기저기 터지는 울음소리와 소소한 사고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공부방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보내고 있

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한 한 미소로 달려와 품에 안기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내일 하루도 분명 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흑빛공부방이 되어있겠죠?

삼척, 강릉으로 떠난 3월의 졸도여행에서는, 바닷바람 날리며 힘껏 페달을 밟고 해양레일바이크를 타면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릉 참소리 박물관에서는 에디슨의 발명품인 축음기와 영상기, 전구에 대한 공부도 하고 즐거운 음악 감상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경포바다에서는 들뜬 마음으로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적시며 모래장난도 치고, 작은 병에 조개와 추억을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구미냐? 양구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건의 집 엄마

종태와 석정이가 중학교를 졸업했다. 한 살 차이가 나는 형 아우이지만 석정이가 일곱 살에 입학하게 되어 늘 같은 학년으로 묶여 다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가족이 된 종태는 2-3년 정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 심한 가슴 앓이를 하더니 결국 공부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았고 욕심껏 노력을 하더니 양구에 있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에 합격하였다. 여섯 살에 한 가족이 된 석정이는 천성적으로 착하고 평화로운 것이 돋보이는 성격인데 그 부드러운 이미지 덕분인지 성적이 조금 걱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모두 하느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믿는다.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나 악습 등으로 상처 앓이를 하는 아이들이 더 많지만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체험으로 믿는다.

만약에 삶을 인간적 가치기준의 성공이냐? 아니냐? 로 보자면 우리 집은 아쉬움 투성이다. 거의 실패요 한숨이요 원망일 뿐이다.

이다음에 커서 세금 잘 내는 성실한 사회인이 될 것을 강조하지만 때때로 생활하는 모양새가 성실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축내는 사람으로 전락할 것처럼 보여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외교관이 되는 것을 꿈꾸는 종태나 삼성 전자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는 석정이는 목표가 뚜렷하니 세금을 잘 낼 것 같다.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되어 준



구미에 있는 구미전자고등학교에 합격하였다.

정 반대의 천성을 지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욕심스러움으로, 한 사람은 느긋하고 여유로움으로 둘 다 특목 고등학교에 합격하였으니 2010년도는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 해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 보살피주셨음을 감사하며 겸겸사 소식을 전하였더니, 회사에 다니는 큰 형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해내야 제대로 된 경사가 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아마 사회에 나가 살아보며 겪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형으로써 동생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든든하고 보기가 좋다.

지금까지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들을 소신껏 훈육하며 살아왔지만 내 뒤통은 과정일 뿐이고

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라, 조심스레 기도하며 신중하게 지켜 볼 일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집을 말없이 지켜주시는 은인님들 다행히 해주시기를 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두 아들을 특목고에 보내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양쪽으로 쫓아 다녀야 하는 일이 많은데 거의 모든 일정이 같은 날짜가 많다. 벌써 수차례 면접이다 캠프다 반배치 고사다 하여 양쪽으로 장거리 출장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는 같은 지역 내 같은 학교라 별 문제가 없었지만 당장 같은 날짜에 잡힌 입학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 행복한 고민이며 양구냐? 구미냐? 그것이 문제로다!

세상이 나를 부르네!

김점숙 <천사장애인지원보호소>

원주 봉산동 753-1번지 산자락에는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곳은 낮동안 14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천사장애인지원보호소입니다.

그동안 장애아동들만 이용하다 성인장애인들도 함께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동들만 있었던 기관이라 처음엔 조금 어색하였지만 갈수록 활기가 넘치고, 형, 오빠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신나고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친구들이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차 한 잔을 하면서 직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대화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통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원예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배우곤 합니다. 흙을 무서워하던 친구들이 흙을 만지고, 꽃을 보며 좋아하고, 그래서 원예선생님을 기다리게 된 친구들, 허브향을 맡으라고 하면 손으로 밀어내던 친구들이 향을 맡으며 좋아하는 모습에서 교사들은 또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게 합니다.

새롭게 도전한 요가프로그램. 요가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교사들의 생각에는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 년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요가선생님과 친해지고 쉬운 동작은 따라 하기도 하며 춤도 추고, 서로서로 잡아주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실폐해도 웃어주고 박수를 보내는 친구가 있고 응원을 해주는 교사가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친구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꾸준히 반복훈련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가기위해 노력하는 곳, 천사장애인지원보호소를 응원해 주세요.

2011년에도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합니다. 많은 사랑과 기도를 보내주세요.

나는 괜찮아요, 할아버지 먼저 살립시다

정복희 할마

<도계 작은꽃노인복지센터장>

일요일 늦은 시간 “나 지금 숨을 쉴 수 없어요. 날 빨리 병원 좀 데려다 주요.” 하는 할아버지(67세)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119에 전화하니 긴급환자를 후송 중이라 차가 없다고 했다. 도계지역엔 한 대밖에 없는 119 차량이다. 2개의 작은 병원이 있지만 앰블런스가 없었고, 일단 산소 호흡기를 빌려갈 생각으로 병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할아버지 댁으로 차를 몰았다.

할아버지는 평소엔 폐기종이란 병을 앓고 있었고 친인척이 없이 오직 작은꽃센터에만 의지하며 사시는 분이셨다.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만 같은 목소리가 귓전을 맴 돌았다.

밤길 운전을 하며 진폐로 호흡기질환을 앓고 계시는 할머니(78세)집에 가정용 산소호흡기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 무조건 달려갔다. 할머니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호흡곤란으로 숨 쉬기 힘들 때를 대비해 설치해 놓은 생명줄이라던 그 산소통을 나는 괜찮으니 그 사람먼저 살려야 한다면서 얼른 내어 주셨다. 산소통(가정용 LPG 가스통보다 조금작은)을 싣고 할아버지 댁으로 가 응급조치를 하며 30분이 걸려 병원으로 모셨다. 휴~~ 할아버지는 그렇게



원에 전화하니 빌려줄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곳에 혼자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없었다.

게 몇 차례 입퇴원을 하시다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다. 생명줄인 산소호흡기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할머니 덕분에

할아버지는 조금 더 사실 수 있었다.

할머니 또한 혼자 사시는 분이다. 진폐 환자로 숨이 차서 대화도 못할 만큼 어렵지만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도 못하고, 호적상 있는 자녀 때문에 정부지원금도 없이 재가에서 20여 년간 약만 복용하고 계신다. 4년 전부터 작은꽃오람표이 일일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며 차량운행도 마다하고 10분 거리를 한 시간 넘게 걸어오신다. 작은꽃센터 덕분에 이렇게 걸을 수 있다며 늘 고마워하셨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1월 할머니는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20여년간 재해진 폐자로 아무런 도움이 없었는데 올해 진폐환자로 정부에서 매월 6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었고, 첫 번째 받은 돈은 값지게 쓰고 싶다며 선뜻 50만원을 내어 놓으셨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그동안 센터에서 도움 받은 것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며 후원금으로 주시는 것이었다.

자신의 생명줄인 산소 호흡기도 망설임 없이 내 주시던 할머니가 또 이웃을 위해 귀한 성금까지 내 주시니 영하10도를 오르내리던 1월의 강추위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듯 따뜻함이 전해졌다.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준 할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길원이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이번 미국 방문길에 누구보다 가슴 설레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포수를 맡고 있는 서길원입니다.

나중에 멋지고 훌륭한 프로야구선수가 되려는 꿈을 간직한 아이, 생활고에 넉넉한 살림을 꾸리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속 깊은 아이,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께 좋은 집도 차도 사드리고 싶다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아직은 수줍음이 많은 꿈 많은 고교생 서길원입니다.

갤러렛 대학교를 알고부터 길원이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갤러렛 대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 농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 보는 꿈 그리고 한국 농인 최초의 갤러렛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길원이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곧잘하고 특히나 야구에 재능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입버릇처럼 선생님들께서는 아깝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쩌면 그 꿈을 이루기엔 너무도 딱딱한 길원이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지난 5월 7일 갤러렛 부속 고등학교와 시험이 끝난 후 현재 갤러렛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있는 커티스 프라이드는 성심학교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 메이저리그 선수로 활약했던 농인 야구 선수로 미국 농인들에게도 한 명의 영웅입니다. 농인으로 생활하면서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력으로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했다는 그는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 아이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길원이의 천사가 되어주실 분

◇주소: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 메모란에 '길원이 천사'라고 써 주세요)
◇문의: 571-432-9868
(본 회지 16면의 신청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드 감독은 특히 선수들 중 포수로 활약했던 길원이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길원이는 용기를 내어 내가 만약 갤러렛에 유학을 오면 선수로 뽑아 주겠냐는 물음에 프라이드 감독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길원이의 미국 유학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농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인 길원이의 가정 형편을 고려하면 여기 갤러렛 대학교의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해 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하나의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길원이의 꿈을 함께 꾸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선 1004(천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를 꾸준히 지지하고 지원해줄 수호 천사와 같은 천 네분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길원이가 이 곳 갤러렛 대학교에서 공부와 야구를 할 수 있는 꿈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오병이여의 기적이 만들어졌듯 또 한번의 기적을 기다려봅니다.

누군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희망을 감싸주신다면 그 희망이 이루어져 사랑으로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희망은 한국 농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을 보여줄 것입니다.

황윤재 프란치스코
(갤러렛대학교 농교육 박사과정)



고국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허승민 (8세)

승민의 아버지는 중장비 기사로 일하시며 바쁘셔서 자주 승민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지만 승민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조선족인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고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승민이를 보러오신 후 승민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또래들에 비해 체구가 왜소한 승민이는 다운증후군으로 동글동글한 얼굴과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매우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인 승민이는 큰 언니들까지 지휘하고 명령하는 골목대장 같은 아이입니다. 하루하루 건강해지면서 쑥쑥 자라나는 승민이가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민선홍 (13세)

선홍이에게는 귀여운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으며 동생들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함께 생활하지 않으시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홍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주기적으로 만나러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십니다. 선홍이도 아버지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를 늘 그리워 합니다.

아기 다람쥐 같이 귀여운 외모를 가진 선홍이는 조용하고 얌전하여 내성적인 면도 있지만 친구들과 놀 때는 활발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늘 사랑이 부족한 선홍이에게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선홍이가 씩씩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이수빈 (9세)

수빈이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수빈이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시며 가끔씩 연락을 주시고 보러 오시기는 하나 관심이 적으십니다.

동글동글하고 깨끗한 얼굴, 마치 공주님 같이 예쁜 수빈이는 반의 화가입니다. 그날그날 기억에 남는 것과 기분에 따라 하루에 수십 장의 그림을 그려내는 수빈이는 그림 그릴 때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여 화를 내지만 평상시에는 장난도 치고 애교도 부리고 잘 웃습니다. 수빈이가 앞으로도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백경호 (8세)

경호는 아버지의 늦은 결혼으로 얻은 귀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경호 아버지는 자신의 몸 하나 방어할 수 없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고모가 경영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실 때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어머니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직장내에서 잦은 마찰로 실직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생활고에 시달린 어머니는 친척집에 경호를 맡기고 가족을 하게 되었고 경호는 이 사람 저사람 손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약한 아버지는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점점 술로 인하여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서 경호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면서 자식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는 부모님 밑에서 어렵게 성장하였지만 경호는 쾌활하고 밝은 아이로 주변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요즘은 숫자나 한글 공부에 뛰어난 기억력을 보이며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공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호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꾸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이 경호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가정,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다른 친척집에 맡겨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달에 \$60씩 후원을 하며 아이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후원 연결이 되면 결혼가정 아동들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50은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하고, \$10은 결연아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703)994-3531
(한린다 안젤라)

서재범 (16세)

재범이는 조부모님과 어머니, 그리고 세 동생들과 살고 있으며 4형제 중 제일 큰 형입니다. 집은 소초라는 시골이고 아버지는 일상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분이어서 직장도 갖고 있지 않다가 올해 건강이 안 좋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일하시며 생활을 꾸려 가십니다. 조부모님은 농사 일을 하시지만 큰 농사는 아니어서 어머니의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이 아래 3명의 동생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어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범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을 이끌어 나갈 장남이라는 것이 마음 속 깊이 잠재되어 있어선지 가끔 불안해 하며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쁩니다. 재범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재범이가 더 많이 웃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 2011년 5월까지)

일반/업소/단체/기관	
강금생	~2011년 6월
강대성 / 마리아	~2011년 12월
강명희 (에밀리아)	~2011년 12월
강윤선 루시아	~2010년 12월
곽금순 사비나	~2010년 12월
곽종무	~2011년 12월
광숙조	~2010년 12월
구귀옥 (아나타시아)	~2011년 6월
구춘희	~2011년 4월
권순 (리오바)	~2011년 6월
금화열 / 로사	~2011년 8월
김경진	~2011년 12월
김경호 / 김영혜	~2011년 6월
김남현	~2010년 12월
김남례 (모니카)	~201년 8월
김남식 (안드레아)	~2010년 12월
김남식 / 율리아나	~2010년 12월
김동한	~2011년 12월
김두하 / 연희	~2011년 12월
김명희 (율리아나)	~2011년 12월
김문철 / 카타리나	~2011년 12월
김성현	~2011년 6월
김성화	~2011년 8월
김수연	~2010년 12월
김승현 / 현동	~2011년 6월
김영연	~2011년 12월
김영애	~2011년 12월
김영희 아네스	~2010년 12월
김우경	~2010년 12월
김원정	~2011년 7월
김윤상	~2010년 12월
김은자 루시아	~2011년 7월
김인순	~2010년 12월
김재인 (안나)	~2011년 12월
김정자 Spencer	~2011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1년 12월
김정희 / 준수	~2011년 12월
김종빈	~2011년 4월
김호찬	~2010년 12월
김홍자 (아네스)	~2011년 12월
김화동	~2011년 12월
민금성 마리아	~2011년 12월
민틀레희	~2011년 8월
민일성 / 멜라니아	~2011년 8월
바오로희	~2010년 12월
박기주 마리아	~2010년 12월
박민규	~2011년 6월

박봉임	~2010년 12월
박연실 Silliana	~2011년 12월
박영수/Tri State Contractors	~2011년 6월
박종J	~2011년 7월
박찬호	~2011년 9월
서영숙	~2011년 12월
서정길	~2011년 6월
소근화 (도미나)	~2011년 12월
소병각	~2011년 12월
손양조	~2011년 7월
송상훈 / 마리아	~2011년 6월
안나희	~2011년 7월
안병화	~2011년 5월
안성환	~2011년 3월
안진군	~2011년 4월
안진순	~2010년 12월
어도로테아	~2011년 12월
어인경	~2011년 12월
염윤기	~2011년 8월
오성웅	~2011년 3월
우기업 / 데레사	~2010년 12월
원승철	~2011년 5월
유정식	~2011년 12월
윤민숙 데보라	~2011년 12월
은임순	~2011년 8월
이갑현	~2011년 7월
이강영 (테오도로)	~2011년 12월
이경숙 마리아	~2011년 7월
이기녕	~2011년 6월
이만수	~2011년 4월
이변준/세실리아	~2010년 12월
이수연	~2010년 12월
이순남	~2011년 7월
이순용 (안젤라)	~2011년 7월
이순주	~2011년 6월
이승구 / 분다	~2010년 12월
이신규	~2010년 12월
이말베나	~2010년 12월
이예자	~2010년 12월
이우진 / 김숙희 / 이명	~2011년 6월
이은배	~2011년 7월
이정일	~2011년 12월
이천우 / 헬레나	~2011년 12월
이태선	~2011년 12월
이태욱 / 리타	~2011년 10월
임계민 / 데레사	~2011년 10월
장경옥 / 윤성	~2011년 12월
전수일 / 글라라	~2011년 12월

전태진 / 전기복	~2011년 8월
정영수	~2011년 12월
조남식	~2011년 12월
조명규	~2011년 12월
조봉순 (아가다)	~2011년 12월
최마리아	~2011년 8월
최순희	~2011년 7월
최재필	~2011년 4월
최종길	~2011년 3월
하명희 (말가리따)	~2011년 8월
하상희	~2011년 12월
한기열 분도	~2010년 12월
한로빈	~2011년 7월
한마리아	~2011년 12월
한정현	~2011년 4월
한중희 / 영희	~2011년 12월
허영숙	~2011년 12월
홍성철 / 세실리아	~2011년 12월
홍알벗	~2011년 9월
홍진원	~2010년 12월
황정자 (데레사)	~2011년 12월
Garvey, Cheryl K	~2011년 5월
Langbauer, Catherine	~2010년 12월
Lee, Susie	~2010년 11월
Lotte Cosmetics	~2011년 8월
Pierce, Young-Mi	~2011년 12월

아동결연 / 시설후원	
대건의 집	
박영희 데레사	~2011년 8월
루치아 쉼터	
박찬영	~2011년 6월
송승혜	~2011년 4월
오승은	~2011년 6월
이데레사	~2011년 8월
이영희	~2010년 12월
이윤아 쟈마	~2011년 6월
최윤옥	~2011년 12월
Pak, Sue	~2011년 6월
목포 작은 꽃들의 집	
김도현 (2 아동 결연)	~2011년 6월
김영식/김소영	특별후원
바오로희	~2011년 1월
베론성지	
박봉임	~2011년 12월
북평성당	
김병윤	~2011년 7월

북한탈북자지원	
Yuh, Teresa	특별후원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김명숙	~2010년 12월
성승옥	~2011년 6월
성찬용	~2010년 12월
소재웅 / 소난희	~2010년 12월
이명자	~2011년 9월
이연철 / 박희임	~2011년 7월
편성대	~2011년 6월
한귀병 (토마스)	~2011년 5월
익명 H	~2011년 7월
서울장학결연	
김주리	~2010년 12월
최병렬 / 최경희	~2011년 7월
영월 다문화지원센터	
김병윤	~2011년 7월
유자경	~2011년 8월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강명희 (에밀리아)	~2011년 8월
김병윤	~2011년 7월
김영지	~2010년 12월
김용상	~2011년 8월
김지은	~2011년 7월
매죽희 (2명 아동후원)	~2011년 6월
바오로희	~2011년 1월
박영수 (2명 아동후원)	~2011년 6월
서윤배 / 데레사	~2011년 6월
윤경자	~2010년 12월
이도훈	~2011년 1월
이봉기	~2010년 12월
이연철 / 박희임	~2011년 7월
장경옥 / 윤성	~2011년 12월
정우석	~2011년 6월
정일희	~2011년 6월
차명자	~2011년 7월
한중희 / 영희	~2011년 8월
원주 비안네성소	
강명희	~2010년 12월
구귀옥	~2011년 6월
금화열	~2011년 8월
김남례 모니카	~2011년 8월
김두하	~2011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0년 12월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김두하/연희	~2011년 12월
김미경	~2011년 8월
김선민 Andrew	~2011년 7월

김효중 아네스	~2011년 7월
박용걸/완다	~2011년 12월
안희숙 스텔라	~2010년 12월
유정식/루시아	~2011년 12월
이신규	~2010년 12월
한중희/안젤라	~2011년 8월
Beecher, Wolkyun	특별후원
제천 노인복지관	
소재웅 / 소난희	~2010년 12월
익명 C	~2011년 6월
천사들의 집	
김정옥 / 박숙희 (2 아동후원)	~2011년 6월
박인옥 / 도원	~2011년 6월
임영재	~2011년 6월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강스텔라	~2011년 6월
고현주 (2명 아동후원)	~2010년 12월
김미정	~2011년 9월
김영식 / 김소영	~2011년 9월
노명아	~2011년 3월
익명 P-2	~2011년 12월
유지광/유보나 (2명 아동후원)	~2011년 5월
이용선 (4명 아동후원)	~2011년 12월
이지연 마리아	~2011년 6월
정규임	~2011년 7월
최일지	~2011년 2월
흑빛공부방	
김순섭	~2011년 6월
늘푸른여성골프회	~2011년 12월
박완다	~2011년 12월
이진희	~2011년 7월
차창옥	~2011년 7월
최평란	~2011년 12월
네팔	
김명숙	~2010년 12월
김명철 / 소화	~2011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1년 12월
김헬리시아	~2011년 12월
변애린	~2011년 12월
안크리스토퍼	~2010년 12월
이은배	~2011년 12월
정규임	~2011년 12월
허영숙 (2 아동후원)	~2011년 12월
사랑의 선교 수사회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성심원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에과도르	
백승태 / 마리아	특별후원

유보나 팀	특별후원
파푸아 뉴기니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박기주 마리아	~2010년 12월
변레지나	~2011년 12월
안순상팀	특별후원
필리핀 빠야따스	
김연훈 베로니카	특별후원
소난희	특별후원
이기녕	특별후원
이주원 / 이은영	특별후원
장윤은	특별후원
Kim, Jason L	특별후원

재정기금	
김돈현	~2010년 12월
김명철	~2011년 7월
성정바오로천주교회	~2010년 12월
차명자	~2011년 7월
홍세실리아	~2011년 12월
Hi-Tech Bankcard	~2011년 7월

사랑의 모금통

BP Shortfood	2011년 5월
Brafferton Cleaners / 이갑웅	2011년 1월
Capitol Cafe / 서 제임스	2011년 2월
Chesterbrook Excel / 김영술	2010년 11월
Express Seven Food / 박정복	2011년 5월
Fair Oaks Cafe	2011년 2월
John's Cafe / 김재영	2011년 1월, 2월
Liberty Cafe / 박루시아	2011년 5월
Manchester Bagel / 오성웅	2011년 1월
Maynine Inc / 용복순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Monument Cafe / 최지돈	2011년 2월
NADA Cafe / Choi, Sandy	2011년 2월
Paddock Cleaners / 한귀병	2011년 2월
Sun Dry Cleaners / 권순 리오바	2011년 1월
Tyson's Super Cleaners / 정대니얼	2011년 2월
헤어스케치 / 이정연	2011년 2월, 6월

* 후원금 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되신 분, 주소가 변경된 회원님들은 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571)432-9868

행복해진다는 것 / 헤르만 헤세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지.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0년 12월1일 ~ 2011년 5월 31일)

정영수 (일반), Robin Han (일반), Young Geum Eum (일반), Sue Pak (루치아쉼터), 김선민 Andrew (정선 프란치스코의집), Wolkyun Beecher (정선 프란치스코의집), 김미경 (정선 프란치스코의집), 이지연 마리아 (횡성복지관), 임영재 (천사들의집), 박인옥/도원 (천사들의집), Yun Eun Jang (필리핀), 김연훈 베로니카 (필리핀)

2010년 11월 ~ 2011년 5월분 후원금 내역: 총 \$65,897

	2010년 11월	2010년 12월	2011년 1월	2011년 2월	2011년 3월	2011년 4월	2011년 5월	합계
총 후원금	4,340	15,416	10,947	11,907	7,195	10,279	5,813	\$65,897
원주후원회	1,375	1,526	2,702	1,757	1,193	2,454	1,438	\$12,445
성동장애인복지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00
대건의 집	120		120		120		120	\$480
루치아쉼터		320	200	270	120	4,000		\$4,910
베룬성지				120				\$120
북평성당	110	650	170	60	60	60	60	\$1,170
북한돕기			1000					\$1,000
살레시오의 집		120						\$120
삼척종합사회복지관	405	460	245	270	405	335	525	\$2,645
서울장학결연	150	150		300	100	100	100	\$900
영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0		120	180	180	60	180	\$900
원주복지관	170	2,260	2,830	930	690	790	670	\$8,340
원주비안네성소후원		50	60	50	10		40	\$210
정선프란치스코의 집		5,270	590	730	230	130	30	\$6,980
제천시 노인복지관	180	240		60	120		120	\$720
천사들의 집				60	60	60		\$180
횡성종합사회복지관	330	930	390	3,450	900	1,470	510	\$7,980
흑빛공부방	620	620	560	1,820	680	120	1,720	\$6,140
목포 작은 꽃들의 집	480	120	60		1,100			\$1,760
탈북동포돕기		200						\$200
해외후원금								
네팔			800	200		400		\$1,400
사랑의선교수사회		1,200						\$1,200
성심원		1,200						\$1,200
에쿠아도르					1,010		200	\$1,210
파푸아 뉴기니	120			850		200		\$1,170
필리핀 뼈아파스			1,000	700	117			\$1,817

여름이 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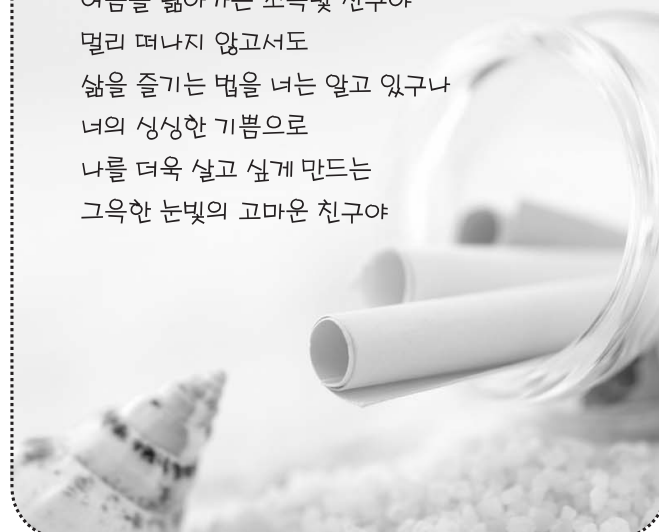
- 이해인 수녀

움직이지 않아도
태양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햇덩이가 되자고 했지?

산에 오르지 않아도
신록의 숲이 마음에 들어차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그늘을 드리우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자고 했지?

바닷가에 나가지 않아도
파도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탁 트인 희망과 용서로
매일을 출렁이는
작은 바다가 되자고 했지?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을 닮아가는 초록빛 친구야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너는 알고 있구나
너의 싱싱한 기쁨으로
나를 더욱 살고 싶게 만드는
그윽한 눈빛의 고마운 친구야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정기회원	매달 12불이상이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중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특별후원	후원금액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금액을 언제든지 후원하시면 됩니다.
고국 아동결연	매달 60불씩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50불은 결연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며 10불은 결연아동 관할 복지관 복지 서비스를 후원합니다.
해외아동복지 급식지원	1년에 \$200로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및 급식지원을 하게 됩니다.

회비납부 방법:

- 매 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는 Caritas Wonju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회비는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연락처 : 571-432-9868/703-968-3010
이메일 : caritasva@gmail.com

재단 이사장: 곽호인 베드로 신부

후원회장: 유홍열

고문 변호사: 이인탁

고문 공인회계사: 노상문

재정이사: 강민식, 김글라시아, 김명철

조영혜, 차명자

김리나, 윤경자, 홍세실리아

김돈현

운영이사: 유자경, 차명자, 고재오

윤경자, 김글라시아, 노상문

한린다, 이 데레사

포스터 디자인: 백경화

홈페이지 관리: 하보이

사진촬영: 지수성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본 회지는 매 6개월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발간인 : 곽호인 베드로 신부

편집인 : 유자경, 이소영, 홍알벗, 신선애

원고 교정 : 정영희

편집 Layout : 백경화

2011년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구 분	정기회원(), 특별후원()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월	\$12() \$20() \$30() \$40() \$50() 기타() 특별후원()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고국아동/공부방 결연 후원 신청서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결연 \$60/월 ()			후원아동/ 공부방이름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급식지원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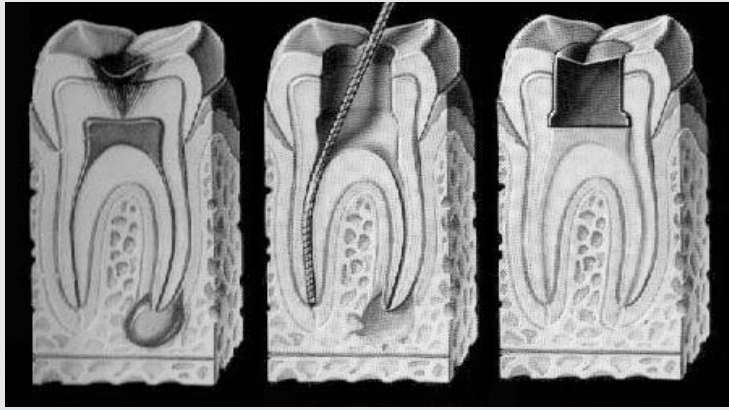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1년에 \$200				

ENDODONTICS-ROOT CANAL SPECIALIST

신경치료 전문의

Charlie H. Hong, DMD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703-359-4447

3554 Chain Bridge Rd., #401
Fairfax, VA 22030

차명자 치과

Myong J. Cha, D.D.S.



모든 일반치과 진료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915 Old Lee Highway Suite 22-D
Fairfax, VA 22030

(703) 273-5033

윤경자 치과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703-538-2283

6081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4



웨어팩스 가정의학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환자 한분 한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의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Michael D. Kim, MD

김돈현 가정의학 전문의

William & Mary 대학 졸업
Medical College of Virginia 의과대학 졸업
미국 가정의학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전 Harrisburg Hospital Family Practice Residency Program의 Clinical Faculty 역임
현재 INOVA Fairfax & Fair Oaks Hospital Staff Physician
현재 AMA, AAFP 멤버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학교신체검사

예방접종

종합검진

보험 : 메디케어 및 각종 보험 취급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Tel. (703)591-4100 / Fax.(703)591-5380
10801 Main St., Suite 700, Fairfax, VA 22030 (새주소)



치 주 치 과 전 문 의

Perio Implant Center 강원근
인공치아 / 잇몸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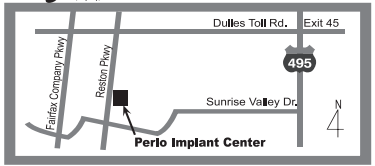
Q 치주(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이란
일반치과 의사들이 강원근 치주치과 전문의에게 리퍼(소개)하는 이유는?

A “각종 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을 가장 성심껏
전문의의 기술로 치료해 드립니다.”

학력
Turfs 시대 졸업
Univ. of MD 치주전문 의 졸업
U.S. NAVY 치주 전문의 연수
Board Eligible for Academy of Periodontology
미 치주학회 정회원
Implant 학회 정회원

진료과목
치주 진료
인공 치아 이식(Implant) 상담 치료
풍치 수술, 잇몸 성형수술

Refer
(리퍼) 일반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때 해당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하는 의료단체



703.648.0500
11866 Sunrise Valley Dr., #101, Reston, VA 20191

www.perioimplantcenter.com

Kim's
AUTO SERVICE



**김씨자동차
정비센터**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성껏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 신용 친절

외제차 & 국내차 대표: 김남식
Fair City Mall 근처 U.S 우체국 바로 옆의 골건물
3707 Pickett Rd., Fairfax, VA 22031 **(703)425-4600**



Serving All Cemeteries • Prearrangements Available
Family Owned and Operated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
9902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425-9702
Peter L. Piscitelli, General Manager

Fairfax Memorial Park
formerly Calvary Cemetery
9900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323-5202

Family Owned and Operated Since 1957



실사출력 전문업체 - 워싱턴그래픽

차량랩핑, 베너, 현수막, 레스토랑,

텔레 등의 메뉴보드, 벽화

그외 모든 디스플레이 그래픽 전문

703.750.2884